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장 노왈수 박사 이사장 전충현 목사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http://www.sb.ac.kr / E-mail : bs0691@hanmail.net
Tel : 02)845-7711 Fax : 02)844-7711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심볼

지저스타임즈

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이든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전 2:00~7:00
(토 · 공휴일 5시까지, 주말 휴진)
원장 송 창 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7번지 SK엠시티 드라마타운 2122호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67호 2013년 6월 2일 주일

불법체류자, 당신도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이성한 경찰청장

경찰청, 불법체류자 성폭행 등 범죄피해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5월부터 7월 25일까지(80일간)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하였다.

통보의무 면제 지침(법무부,3월 1일 시행) 홍보.활용 그간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러 온 경우에도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으며,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2. 9월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 여성이 자국 동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신고조차 못한 사례 발생, 이런 문제를 개선코자,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3월1일 시행)을 마련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3.1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서에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중요범죄 죄종 : 생명, 신체, 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형 법 살인죄, 상해, 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죄, 체포, 감금죄, 협박죄, 약취, 유인죄, 강간, 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특별법 폭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강제출국 걱정 때문에 성폭행 피해 신고조차 못하던 우즈벡 여성 피해자에게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음을 설명, 피해신고 받아 피의자 검거(2013.4월),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불법체류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임이 명백하나, 다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피해구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후 자진 출국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금번 신고기간 운영 시 외국인도움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등 체류 외국인 지원단체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신고도 접수하여 피해사례 확인시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떨림, 울림, 어울림의 영성 가져야"


총신대 심상범 교수

총신대학원 심상범 교수,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월요조찬기도회에서 강조

"한국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떨림, 울림, 어울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총신대 신대원 신약학 심상범 교수는 27일 아침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150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월요조찬기도회에서 특강을 통해 고린도교회와 너무나 흡사한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심 교수는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공동체"라며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지정학적으로 고린도가 있으면서,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며 세속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혼잡한 영성을 가진 교회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처럼 혼잡한 영성을 가진 고린도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중심의 영성(떨림),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섬김과 희생의 영성(울림), 섬김과 희생의 삶은 함께 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영성(어울림)을 가르쳤다."고 밝히고 "한국 교회는 고린도교회와 같은 혼미한 영성의 밤을 지나고 있다."며 거듭 한국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제시한 영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고린도는 동성연애의 본산지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또한 종교 혼합주의였다."며 "이런 음란한 도시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임했다."며 "고린도에는 가정교회들이 모아지면서 큰 교회가 되었다."

"고린도교회는 헬라문화의 발전으로 모든 지식과 구변과 지혜를 육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함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켰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도자를 추종했고, 방언, 예언, 황홀한 경험들과 같은 영적 체험을 영성의 표준으로 삼음으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랑, 교만, 멸시를 보이는 사랑과 덕, 세움과, 질서와 화평과 연합의 부재를 보였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고린도교회는 영적 체험들에게 비하여 성적 자유주의와 금욕주의가 함께 공존하고, '모든 것이 가하다'며, 법정 고소가 남발했고, 이교 신전에서 우상제물의 고기를 먹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며 잘못된 자유주의를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고린도교회는 세례와 성찬과 머리 스타일과 영적 은사들을 남용함으로써 복음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과 질서 혹은 화평에 기여하지 못했고, 예배의 타락과 지도자의 타락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고린도교회는 외적으로는 풍족한 영성을 소유했다. 그러나 시기, 분쟁, 다툼, 자랑, 방탕, 거만, 나뉨(양극화)의 문제가 나타나는 타버릴 공력을 추구했다"며 "그러나 바울의 영성은 순결, 절제, 봉사, 겸손, 나눔, 세움, 질서, 윤리, 삶(실천), 공동체(몸) 등 윤리와 공동체성을 지닌 영성 등 타버리지 않을 공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고린도교회는 영적 부요와 신앙 성숙간의 불일치를 가진 영성이었다."며 윤리 없는 거품 없는 영성, 육적, 세상적인 미성숙한 영성'을 지적하고 이기심과 사랑이 없는 영성, 윤리와 공동체성을 상실한 초-영성(Ultra-Sprituality)의 엘리트주의 무지(앎)와 남용(삶)의 영성, 십자가적 삶이 빠진 영성을 경계했다.

심 교수는 "바울의 영성은 말씀 중심의 영성, 성령 충만한 영성, 성숙한 영성, 십자가 중심의 영성이었다."며 한국 교회가 고린도교회와 흡사한 한국 교회가 바울의 영성을 회복할 것을 도전했다.

"사랑은 은사의 처방만이 아니라, 고린도교회에 나타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하고 "참된 영성은 참된 앎에 기인한다."며 '지혜의 장성한 사람'(고전14:20을 설명하면서 균형 잡히고, 통전적인 성숙한 지식과 신앙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성시화운동을 통해 세속의 복음과 번영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신실한 일꾼을 세워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를 회복해 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랑의 마음과 절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건강한 시민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남북문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비핵화 평화정착 목표, 신뢰와 상호주의, 先사과 後대화 원칙

상습적 국제테러 남침전범집단 북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일을 1주일 앞 둔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자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로서 혈맹을 강조 해온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19대 대통령 취임 보름 전인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자행하여,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파괴하고 나섰다.

북괴는 그 기간 전쟁상태 선포, 휴전협정백지화, 남북불가침 선언 무효화, 서울-워싱턴불바다 협박, 핵전쟁위협, 통신선절단, 개성공단 폐쇄, 영변 핵 재가동 등 구체적 행동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당 규약 및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경제 및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는 등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버렸다.

북괴는 UN 및 국제사회의 제재와 강화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국제정치 외교 및 군사적 압박은 물론 경제적 궁핍이 심각해지면서 내부적 동요와 갈등이 야기됨은 물론, 중국까지 동참한 국제금융제재로 인해서 김정은의 권력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인민군총정치국장' 최룡해를 중국특사로 파견했으나 귀국예정시간을 넘겨서야 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을 겨우 만나 "한반도비핵화가 대세"라는 경고와 "비핵화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질책만 듣고 돌아섰다.

결국 냉대만 받고 빈손으로 돌아갔음에도 노동신문은, 큰 성과가 있었다며 대대적으로 부풀리는가 하면, 북괴 입장을 대변해 온 조선신보를 통해서 특사파견 성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선신보는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전쟁훈련 등 미국의 압살정책" 때문에 '군복특사'를 파견했다고 둘러대면서 최룡해를 통해 "조선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평화번영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찌라시정' 주장을 펼쳤다.

문제는 우리언론이다. 북괴가 박 대통령에게 실명으로 욕악담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양의 나팔 조선신보가 띄운 '대화국면전환'이라는 여섯 글자 애드벌룬에 혹해서 마치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에 서광이 비치고 남북관계에 해빙이라도 맞은 듯 호들갑을 떨어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북괴는 외무성, 국방위, 인민군총사령부, 조평통, 반제민전,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 등 모든 기관과 매체를 동원해서 기존의 남북 간 합의와 틀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전면 부정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차제에 남북문제는 확고한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목표로 先 사과 後 대화라는 명확한 기준에 입각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바로 잡아 새롭게 합의 도출을 위해 건설적 대화와 협상으로 건강한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조선신보 따위 3류 찌라시의 바람잡이 기사에 놀아 날 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3000배 쇼'나 펼치겠다고 하는 무 개념 민주당과 여기에 동참 가세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인한 [국론분열]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73차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LEADERS
아프리카 지도자 컨퍼런스
오라(COME) ~보라(SEE) ~가라(GO)
GLOBAL CONFERENC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LEADERS

♦일 시 : 2013. 5. 29 - 6. 16

♦장 소 : 캐나다(Toronto)→미국(Atlanta→Miami)→아르헨티나(Buenosaires)→우루과이(Colonia) →아르헨티나(Iguassu)→파라과이(Indio Village)→브라질(Iguassu→SaoPaulo)→ 남아프리카공화국(Johannesburg)→짐바브웨(Victoria)→보츠와나(Chobe)→ 잠비아(Livingstone)→짐바브웨(Harare)→케냐(Nakuru)→남수단(Juba)→케냐(Nairobi)


대표강사 정기환 목사 (국제기독지도자협회총재)


주강사 이해숙 목사 (우리들교회)


주강사 김남수 목사 (영은교회)


주강사 백중규 목사 (풍성한교회)




케냐-영은채플헌당


남아프리카공화국-건축진행중


레소토- 건축진행중


C국-신학교헌당


캄보디아-건축진행중

●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의 상기 일정 중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훼이스신학대학교 기숙사 헌당이 있고, 남수단 주바에서 신축교회헌당이 있습니다.
● 지오(지구촌오지)교회건축행전에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 동참계좌 / 우체국 : 세계원주민선교회 104976-01-003328
● 후원 : 사단법인 기독학술원, 세계원주민선교회, 글로벌평생교육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579-9, 강사 정기환 목사 TEL 032)321-9191/ 010-2956-9191

예장합동 비대위 해산 선언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정준모 총회장 설교 양보

"활동 중단하고, 추후 해산 절차 밟을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정준모 목사) 교단의 총회정상화를 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는 21일 서창수 위원장과 송영식 서기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그동안 비대위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비대위는 활동을 중단하고 추후 해산할 것을 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회 화합을 위해 총회가 주최하는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모든 교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했던 노회 상회비 및 세례 교인 헌금도 다시 납부해줄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정준모 총회장이 교단 관례상 했던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개회예배 설교를 양보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 "총회장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비대위도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월 비대위와 정 총회장 간 체결한 합의에서 비대위가 요구했던 정 총회장의 '자진 근신'이 목사장로대회 설교 양보로 어느 정도 이행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기 송영식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사장로대회 설교 양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안이고, 더 이상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비대위가 문제 제기했던 총회 파회는 속회 총회로 해결됐고 총무 문제는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비대위 임무는 다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 목사는 9월 정기총회와 관련해 "비대위의 임무는 마쳤으나, 총회 개혁이나 총무 문제에 대한 헌의 안이 많이 올라온 만큼 안건이 상정되면 찬반 논쟁이 거세 총회가 조용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위의 해산과 함께 총회 개혁의 흐름이 9월 총회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총대들의 개혁 요구가 총회에서 얼만큼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한 경찰청장 한교연 내방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오후 취임 인사차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을 내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박위근 대표회장은 이 경찰청장 일행을 맞아 모든 경찰이 우리나라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만큼 한국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회장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즉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의 척결에 한국교회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경찰청장도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4대악 척결이 주로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폭력을 척결하자는 것이므로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바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표회장은 "이 경찰청장이 취임 인사차 지난번 여러 교계단체들을 순방했는데 이번에 다시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해 미안하다"며 이해를 구하자 이 청장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규모와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말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박 대표회장은 특히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에 주안점을 두어온 탓에 돌봄에 게을러왔다면 이제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일제 강점기 민족의 희망이요 등불이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라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땀 흘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찰청장도 어려운 시기에 치안 총 책임자로 부임해 어깨가 무겁다면서 언제든 불러주시면 고견을 듣겠다며 자신과 일선 경찰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환담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가 이 경찰청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는 직전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자리를 같이했으며, 신윤준 경찰청 정보4과장과 김원태 경찰청 정보3분실장, 혜화서 김병수 서장이 배석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찰 간부 31기로 임관해 경남 거창 경찰서장과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서울청 수서경찰서장, 주 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충북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지난 3월말로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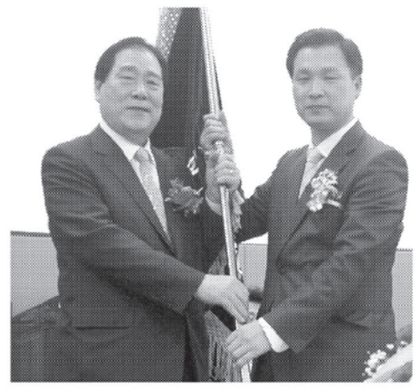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김주환 원로목사 추대, 이수형 담임목사 취임

순복음춘천교회, 제2의 도약과 부흥, 선교 다짐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김주환 원로목사 추대 및 이수형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2의 도약과 부흥, 선교에 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1972년 4월 3일 춘천 효자동 18평 2층에서 김주환 목사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으며 이듬해 팔호광장 인근으로 성전을 이전했다. 2002년에는 만천성전으로 이전하고 2003년에는 혜민 사랑의 집(대표: 조남진 장로)을 개관했으며, 10년동안 연인원 28만4천7백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했으며,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5억여원이 모아져 사용되었다. 또한, 2004년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시작으로 두란노 어머니학교, 두란노 부부학교를 잇따라 개설했다.

특히 9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장을 역임한 김 목사는 2008년 강원일보사와 공동으로 북강원도 결핵 어린이돕기 범도민운동본부(본부장: 조남진)을 세우고 이듬해 1만 명분의 결핵약품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도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5회 DMZ 평화상 교류협력상을 수상했으며 상금 전액을 도내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로 써달라며 도교육청에 기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교단과 교계 인사,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복음춘천교회 뒤나미스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하성 총회 부총회장 함동근 목사의 사회, 김찬석 목사(강원지방회 부회장)의 기도, 김창윤 목사(강원지방회 서기)의 성경봉독, 갈릴리 찬양대(순복음춘천교회)의 특별찬양, 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마 5:3~12 중심으로 '아름다운 조화'라는 제목의 설교로 1부 예배가 진행되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먼저, 김주환 원로목사가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온 목회 43년의 발자취의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백창기 목사(강원지방회 증경회장)의 원로목사 소개, 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사와 공포가 이어졌다.

총회장 박성배 목사가 김주환 목사에게 원로목사 추대패(기하성)를, 춘천시 이광준 시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원종국 감독이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춘천시기독교연합회장 피종호 목사, 기하성 강원지방회장 여성운 목사, 춘천CBS 임형섭 본부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강원지방경찰청 교경협의회 박상호 목사가 공로패를, 강원지방경찰청,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춘천지회장 원기배 목사,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장 원기배 목사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41년 동안 순복음춘천교회와 김주환 목사와 함께 동역을 한 조남진 장로(전 강원일보 사장)가 회고사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원종국 감독, 춘천시 이광준 시장, 춘천시 김진태 국회의원이 축사를, 김주환 목사 자녀와 메조 소프라노 송윤진 집사의 축가가 있었다.

교회와 장로회, 총남선교회, 총여선교회에서 김주환 원로목사에게 축하화환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주환 원로목사가 답사를 통해"순복음춘천교회 목회 41년 동안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원로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도구와 종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일주일에 하루씩 본인의 간증이 담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도내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찾아 돌보는 등 제2의 사역을 펼치기로 해 올바른 목회자 상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찬규 목사(강원지방회 총무) 사회로 시작된 3부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취임목사 소개를 박문수 목사(지방회 재무)가, 서약 및 치리권 부여, 공포는 강원지방회장 여성운 목사가 진행했다.

김주환 원로목사가 이수형 담임목사에게 교회기와 담임목사 취임패를 전달했으며, 육병렵 목사(강원지방회 증경회장)가 권면을, 오황동 목사(강원지방회 증경회장)가 축사를 했다.

교회와 장로회, 총남선교회, 총여선교회에서 이수형 담임목사에게 축하화환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수형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전통과 역사를 간직하며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복음춘천교회를 만나면서 세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으며, 위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족한 종에 우리 교회에 온 인류에 오고 가는 세대에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1964년도에 저를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 김주환 원로목사님이며, 세 아버지를 잘 모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께 칭찬 듣고, 저도 김주환 원로목사님처럼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마음껏 축하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열심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박태하 목사(지방회 회계)가 광고를 하면서, 김주환 원로목사 큰아들이 아버지를 업어 드리는 시간을, 이수형 담임목사가 김주환 원로목사를 업고 강대상을 도는 시간을 가졌다. 송영으로 이경수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주의 길을 가리라' 색소폰 연주를 하고, 박종선 목사(기하성 증경총회장)가 축도를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롬방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층 아동센터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성령의 불길로 세계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서교회
KYOUNG SEO PRESBYTERIAN CHURCH SINCE 1982

지나온 30년 그리고 또 다른 한 걸음

2013 축복의 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행복한 우리


당회장 홍재철 목사


홍성익 담임목사



• 시무장로
배인관 장로, 고 현 장로, 임선복 장로,
김남국 장로, 박정욱 장로, 조재환 장로,
권기원 장로, 신동률 장로, 한남규 장로,
기노희 장로, 안연각 장로, 진영선 장로,
손창호 장로, 정 인 장로, 박재경 장로,
류재화 장로, 강남주 장로, 김봉석 장로,
김도현 장로, 한재광 장로, 이수동 장로
• 명예장로
김중순 장로, 이인희 장로
• 할렐루야 성가대
음악국장 : 박정욱 장로 반주자 : 김성은
오르간 : 성희로
성가대장 : 박정욱 장로
총 무 : 김철호 권즈부장 : 김남덕
상임지휘자 : 한이경 전사
부총무 : 김은기, 신봉진
악보장 : 류세성, 강병선, 백종부
파트장 : s : 송희숙 A : 송명순
T : 김한수 B : 조봉복

• 예배시간안내

부 서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주일오전 7시	슬로몬성전(B1층)
	2부	주일오전 9시	에루살렘성전 (3층)
	3부	주일오전 11시30분	
	4부	주일오후 3시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슬로몬성전(B1층)
금요 철야		금요일 저녁 8시30분	에루살렘대성전(3층)
새벽 기도		매일 새벽 5시	슬로몬성전(B1층)
경서 기도학교	영아부	주일오전 9시	벧엘의집(4층)
	유치부		기브리엘(B1층)
	유년부		사랑의집(B1층)
	초등부		소망의집(B1층)
	소년부		믿음의집(B1층)
청소년부	제1청소년부	주일오전 9시	슬로몬성전(B1층)
	제2청소년부		비전 아카데미(2층)
주일 찬양예배	청년국	주일오전 11시30분	슬로몬성전
		주일오후1시30분(찬양예배)	

(421-80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1번지
전화 : 032) 684-8241-5 Fax : 032) 684-8240 http://www.kyoungseo.org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정충현교회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3표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시편9:11)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총재)

시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십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가라.

찾아오시는 길
(도시철버스)
1 종산 ↔ 화정 85-1 고양동 ↔ 송정전철역
850 고양동 ↔ 행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직행버스)
85 고양동 ↔ 김포공항 800 내유동 ↔ 신촌
9701 가좌동 ↔ 영등 9713 본일산 ↔ 서울역
(지하철)
82 내유동 ↔ 원흥로 1900 본일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예술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2번출구 (도보 8분거리)

예배시간
주일오전예배 : 오전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웨신총회, 웨신대서 목회자 재교육실시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지난 16일 오전10시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이사장 한동숙 목사),4층 총장회의실에서 가져 교단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웨신총회 증경총회장 임칠환 목사, 수석부총회장 장창윤 목사, 부총회장 허성인 목사, 서기 조강수 목사, 회계 이영풍 목사, 직전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등이 배석했으며, 웨신대는 총장 박형용 박사, 기획처장 김성욱 교수, 교무처장 박성환 교수, 실천처장 최승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총회임원들과 웨신대 총장을 비롯 교수들은 목회자 재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4주간의 재교육에 대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차원에서 한번 더 모임을 갖기로 하고 웨신대 총장 박형용 박사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웨신대와 웨신총회는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학교와 교단발전을 위해서 총회는 각 노회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목회자 재교육에도 긍정적인 뜻에서 양측 실무자들이 손을 맞잡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조강수 목사 웨신대서 채플시간 말씀 전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재학생들은 2층 대강당에서 채플시간을 갖고 강사로 웨신총회 서기 조강수 목사(인천영광교회)를 초청, 실천목회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말씀을 들었다.



강사로 나선 조강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1. 영적인 권세, 2.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3. 물질의 권세를 다스리는 3가지 권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지도자는 넓은 마음, 큰마음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비로소 하나님은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귀한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전했다.

특별히 웨신교단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동 대학원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넓고 큰마음을 가진 선지생도들이 많이 배출되어 한국교회와 세계를 복음화 시키고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원하고 축도로 마쳤다.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감동의 무대

550명 어린이, 오케스트라, 3천 관객 어우러져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합창제인「제3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5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엔젤스합창단 등 총 10개 어린이합창단이 아름다운 합창과 율동을 선보였으며, CTS 교향악단과 CTS 소울콰이어가 특별출연했다.

특히 마지막 연합합창으로 어린이 합창의 선구자인 윤학원 교수의 지휘 아래 550여명의 어린이들이 천사의 하모니를 들려주었다.



CTS 감경철 회장은"참가팀 모두 1년 동안 많은 노력으로 준비해 왔다"며 "CTS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침체된 교회학교 부흥을 돕는 것처럼 이번 행사가 어린이 합창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인 합창단 문화의 활성화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하고 당당한 활기찬 노년 '건강장수마을' 에서

충북농업기술원, 고령화 대응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숙종)은 농촌을 진정한 건강 장수사회로 만들고,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마을 노인과 주민들이 마을 실정에 맞는 건강생활과 안전 환경조성, 소득?경제활동 등 생산적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강하고 의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 선정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마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곳으로, 마을 노인의 50%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수마을로 선정되면 3년간 1억 5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어르신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2005년 처음 5개 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1개소 마을을 선정 지원 하여 46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10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들 마을이 성공적이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현지 기술지원과 마을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계획 수립과 사업비 사용계획 등의 컨설팅을 하였다.

2012년 전국 시범마을 실천 경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진천군 문백면 '봉암' 마을은 전국의 견학지로 손님맞이에 늘 분주하다. 이 마을 서광준 이장은"농촌건강장수마을을 하게 되어 마을 주민들이 다양하고 활발한 공동체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마을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농업기술원 최재선 지도사는 "농촌은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고, 생명친화 농업활동과 저소비생활이 가능하므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마을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주요사업은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을 위하여 노동, 운동, 휴식의 규칙적인 생활과 전통 식생활 실천, 게이트볼, 노래 부르기, 생활체조 등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문화 형성으로 즐거움을 나누는 생활을 일상화,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사회활동 촉진으로 시니어 교양교육, 동아리 활동, 마을홍보 및 안내자 역할 등 마을과 지역 활동을 유도하며, 노년기 생활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자연친화적 요소를 활용한 산책로, 휴식시설 설치와 고령자들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안전생활 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소득·경제활동을 위하여 화초나 원료작물 재배등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저 강도의 소일거리 소득 화에 나서고있다.

전진교회 이전감사 예배 드려



지난 25일(토) 오후 3시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에 소재한 전진교회(담임 황찬익 목사)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전감사예배는 예장 백석총회 인천노회 4시찰 주관으로 시작되어, 시찰장 김태구 목사는 고린도전서 13:1-13 말씀을 주제로 "사랑"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확장 이전케 됨을 축하하며, 담임목사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돈독해야 목회가 잘되며, 목회하면서 항상 목회지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하며,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는데 특히 부흥하지 않아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는데 순교자적인 믿음과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호 목사는 축사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하게 됨을 축하하고, 증경노회장 이길호 목사는 권면에서 행2:17-19절 말씀을 인용 '성령에 사로잡혀 목회를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그런 목회자에게 더 좋은 목회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권면했다.

담임 황찬익 목사는 인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전 감사예배를 통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불어 성도들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더욱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인도하심을 감사 한다' 고 했다.

이날 황찬익 담임목사는 사회 및 광고하고, 대표기도 및 설교는 시찰장 김태구 목사(국제초대교회)가, 축하 특송은 박장영 목사(하민성결교회)가, 권면과 헌금기도 및 축도는 증경노회장 이길호 목사(기쁨의 교회)가, 축사는 안철호 목사(안디옥교회)가 각각 맡았다.

인천지사 곽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본 신문방송 언론부흥사협의회 단체는 기독언론단체로서 한국교회와 기도원 개 교회, 농어촌 선교에 사명을 가진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부흥사로뜻을 같이 할 것이며,
본 단체는 보수적이며 건전교단에 속한 사역자들로서 초교파 부흥사단체이다. 이 시대의 사명감당을 위해 뜻이 있는 사명자라면 본 단체는 크게 환영하며 회원으로 맞이합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화정충현교회)


대표회장 정기남 목사 신문방송 대표이사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부총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총재 정대성 목사 (강남복된교회)


부총재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원장)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강사단장 박수영 목사 (행복샘교회)


상임회장 홍항표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벧엘교회)


상임회장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상임회장 김동기 목사 (백석대평생교육원)


상임회장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자문 박양우 목사 (중부권지사장)


자문 이범성 목사 (한기범대표회장)


자문 허 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자문 최순길 목사 (논설위원)


자문 서영웅 목사 (퓨리탄대학총장)


자문 박한규 목사 (수도권 은목교회)


실무회장 여현관 목사


공동회장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원장)


공동회장 임요한 목사 (문화부 부장)


공동회장 정성준 목사 (벧엘교회)


공동회장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공동회장 김명옥 목사 (부흥사관학교 교장)


공동회장 전진성 목사


공동회장 강신숙 목사 (강신숙예술신학원)


공동회장 우슬초 목사 (주성청각장애인교회)


공동회장 임해숙 목사 (서울방주농아교회)


공동회장 김부경 목사


회계 유윤주 목사 (조에 교정선교회)


총무 김홍중 집사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press@hanmail.net 웹하드: I.D-cpjkr, P.W-km1122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 세기총가입

《세기총은 세계한인 디아스포라공동체들이 땅 끝까지 복음증거 목적》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이하 세기총)에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회장 이병용 목사)가 공식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세기총 박위근 대표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한교연 대표회장실에서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 회장 김병용 목사와 김안홍 목사 등 대표단 일행에게 회원 인증서를 전달하고 전 세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함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매진하기로 다짐했다.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인사말에서 "세기총이 창립된 것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 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 같은 뜻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을 열려있다"고 말하고"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가 한교연과 공식 MOU를 맺은 데 이어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세기총에 정식 가입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 회장 이병용 목사도"세기총의 일원으로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업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과거로 돌아가 날로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기총 부총재 김요셉 목사와 상임회장 황의춘 목사(미기총 대표회장)가 배석했다.

한교연, 서울시 '행복한 작은도서관' 2,3호점 열어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함께하는 행복한 작은도서관이 지난 5월 6일 중앙성결교회(한기채 목사)에서 오픈한 1호점에 이어 29일 2,3호점이 잇따라 개관되었다. 이날 2,3호점 개관식에는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서울시 도서관장 등 관계들이 참석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책 읽는 서울 구현을 위한 한교연-서울시 업무 협약(MOU)에 따라 추진되어 온 '행복한 작은도서관' 2호점은 29일 오후 2시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우성교회(박광철 목사)에서, 3호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새서울교회(윤성호 목사)에서 각각 개관식을 가졌다. 2호점 우성도서관은 30여 평 규모에 2천여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3호점 길숲도서관은 60여평 규모에 6천여권의 장서가 구비되어 있다.



2호점 우성도서관 내부

한교연과 서울시는 그동안 한교연 회원교단 소속 100개 교회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협력해 왔으며, MOU 체결과 함께 제1호 '행복한 작은 도서관'을 중앙성결교회에 개관한데 이어 2,3호점이 잇따라 개관함으로써 책 읽는 서울 구현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동이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교연은 회원교단 교회 100개소(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4개소씩 한교연이 선정)에 작은도서관 100개소 설치를 추진하되, 장소와 장서 등 작은도서관 조성은 한국교회연합과 해당 교회가 부담하고 작은도서관 설치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장서 등 민간 기부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한교연에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컨설팅 지원을 맡게 되며, 도서관 운영관리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 인력 교육 지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원, 도서관 맵에 작은 도서관 정보 탑재를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성명서〉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무상보육을 영·유아 전 연령에 실시하고 있다. 2005년 1조 미만의 예산과 비교하여 2013년 보육예산은 7조 이상, 일본(2012년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430410백만 엔. 약 5조)보다 높고 아동 수는 훨씬 낮다. 그런데 이미 2012년 0~2세,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한 상황에서, 2013년 전면 무상 보육에 이르기까지 보육 현장의 부모들과 교사들은 보육의 질이 나아졌거나,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 여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2012년 감사원 보육추진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수가 낭비되고 있는 사실과, 감사원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방송에서 수년 동안 연일 끊이지 않게 보도하고 있는 전국 어린이집의 부정 수급 사례는, 국내 보육이 그토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보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세상에 드러낸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더욱 우려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사례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강제 초과근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휴가 불용, 비상식적인 아동비율 등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로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운영자들은 정부 지원이 미비하여 법을 지킬 수 없다며, 불법을 정당화 하고 있고 정부는 사업주가 책임질 일이라고 대응할 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보육현장은 무법천지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에 우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태조사와 전국 대학교의 학위논문에서 드러난 사실로서, 90%이상의 보육교직원들이 위의 내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수년, 수차례 정부에 알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금번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보육교사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일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88.7%, 법정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96.6%, 점심시간에도 근무 90.8% 등 보육교직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이 여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2005년부터 전환한 아동별 지원방식은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 곳곳에 발생하여도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구조로 고착시켰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었으며,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에 큰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체계를 수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은커녕 법질서가 유린된 상태에서 그대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보육교직원들은 여전히 위에 언급된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수가 누수 되는 현 정부의 재정지원체계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대로 무상보육을 계속 집행한다면 그 효율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며, 만일 이마저 외면하고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리감독 이행 등,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제연합(UN)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 무책임한 정부 행태를 만천하에 고할 것을 천명한다.

1.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국가예산으로 무상보육을 수행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교직원들의 임금보전이다. 정부가 표준보육비용 산출시, 교사인건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료를 결정한 만큼, 이는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첫 걸음이다. 교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현행 아동별 지원 방식은 민간의 영리와 시장의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것임 으로 계속 크고 작은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교직원들의 임금 보전 방식은 이미 초중등 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안정된 체계이다. 교사 인건비는 매년 표준보육비용에 산출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교직원들에게 그 금액만큼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지원금이 그 만큼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시설에 들어가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도 된다.

2. 관리감독 소홀로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비롯한 각종 논문 실태 조사, 방송, 언론 등에서 드러난 최저임 금법 위반, 강제 초과근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법정 휴식시간 미준수, 휴가 불용, 비상식적인 아동비율(초과보육)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조속히 이행하고, 여성 및 피고용 신분의 불리한 입장이라 재취업에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나서지 못하는 교직원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라.

3. 새 정부는 현행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고 즉각 수정, 조치하라.

2005년 보다 오히려 훨씬 높아진 현 교사 대 아동 비율(초과보육허용)은 시설운영자들의 요 구와 이에 응한 정부 관료들의 결과물로 아동을 돈으로 환산한 비교육적, 비인간적 보육정책이다. 이는 보육예산이 6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역행시켰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지침이다.(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대 아동 비율 참고)

4. 교직원들의 법정 근로 시간을 보호하라.

현행 어린이집은 12시간 이상 아동들을 돌보는 구조이나 실제 아동발달과 운영 특성상, 보육교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 다수의 아동들이 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후에도 시설에 남은 아동들을 연령에 관계없이 혼합, 보육하고 교사들을 초과근무케 하는 행위는 아동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 유발, 교사에게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후시간 이후에도 필요로 하는 수요 즉, 맞벌이 자녀와 요보호 아동 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보육 수요를 파악하여, 일반 민간시설이 아닌 국·공립 시설과 우수한 어린이집 중심의 지역 거점 시설로 우선 입소시켜 오전, 오후, 야간, 24시까지 효용성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한다.

일반 어린이집은 법정 8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거점형 어린이집은 수요에 적합한 교사를 오후에 새로 배치하여 아동과 교직원, 부모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아동 한두 명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 정부의 비효율적인 보조금 지급방식을 지양할 것이며, 교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의 폐해를 멈추게 할 뿐 만 아니라, 수업 준비 등 직무를 집에 까지 가져가지 않게 할 것이다.

아동들에게는 오후 시간 이후에도 적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것이다.

5.보육정책 담당자를 징계하라.

수년 동안 전국보육교직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논문 등의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시민단체와 본 단체가 정부에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수차례 알려 시정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자료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교직원들의 '인건비 미지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교직원들에게 법정 8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위반)에도 사업주가 계속 근무를 시키는 범법 행위에 대해, 세부 행정지침과 안내,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른 지침과 일관되지 않게 그것을 내려줄 수 없다는 감독기관으로서 지극히 납득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행정가들이 사업주 단체와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중앙정부는 조속히 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2013년 5월 16일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공동대표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3째주 (월-목) 정기 성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 예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연수원장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 표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예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연수원장)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5대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교장(서울) 교장(인천) 행정 교 수 진



김명옥 목사 김해자 목사 윤광석 목사 김선우 목사 김성팀 목사 김영중 목사 곽영민 목사

http://kiea.onmam.com

과목: 찬양실제, 시편연구, 설교실제, 부흥사연수

교재 및 회비 없음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2시.

☞장소 : 충만교회 · 총회신학연구원.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8-7 2층.

☞문의 : (대표)010-2080-0651, (행정)010-2008-5072

총회신학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2013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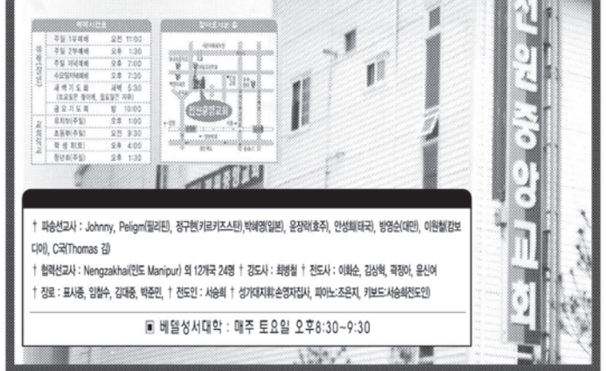


담임목사 정기환 (D.Ed.,Th.D)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듯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전원중앙교회는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하기를소망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전원중앙교회의 미래 1.성장하는 교회 2. 건강한 교회 3. 아름다운 교회



† 파송선교사 : Johnny, Peligm(필리핀), 정구현(카르키즈스탄), 박혜영(일본), 윤장덕(호주), 안성희(대국), 방영순(대만), 이학철(캄보디아), C국(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i(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화순, 김상택, 곽정아, 윤신여
† 장로 : 표사종, 임철수, 김태중, 박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손영자집사, 피아노:조은지, 키보드:서승희전도인)

▣ 베델성서대학 : 매주 토요일 오후8:30~9:30

가정같은교회 ↔ 교회같은교회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Th.D)
▷SBS방송설교안내: 라디오 5분 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cbs 인터넷방송 WWW.CBS.CO.KR 24시간 청취가능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 이사장 (www.jtntv.kr www.cpj.kr)

주 소 : 420-8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9-5 (전원마을)
사무실 : 032) 321-9101, 9102, 9109
전화설교 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동산 : 강원도 양주군 동면 원당리 산43-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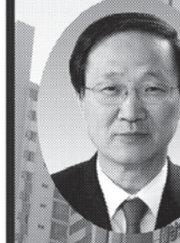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2013년 표어 "넘쳐나는 교회"

전도로 구원받는 백성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훈련으로 성숙한 일군이 넘쳐나는 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비전 2020
1. 열정적 전 도
2. 전인적 양 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 배
5. 기쁨의 봉 사
6. 즐거운교 제
7. 능력의 선 교

예배시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30분	대예배홀(3층)
	2부	주일 오전 9시30분	대예배홀(3층)
	3부	주일 오전 11시30분	대예배홀(3층)
주일청소년예배	1청년부	주일 오후 2시30분	비전홀(1층)
	2청년부	주일 오후 2시30분	1세대나실(2층)
주일 오후 예 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홀(3층)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대예배홀(3층)
수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30분	대예배홀(3층)
새벽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홀(1층)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주일학교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부(3세이하)	1층 영아부실
유치부(4-7세)	1층 유치부실
1초등부	2층 1초등부실
2초등부	2층 2초등부실
중등부(중1,2,3)	2층 중등부실
고등부(고1,2,3)	2층 고등부실
태아사랑학교	1층 유치부실
아기학교	1층 유치부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北 김정은 南 김현철 5.18 논란에 끼어들어

특정이해나 명예문제를 초월, 5.18 역사적 진실과 정의의 문제

그동안 일부 인터넷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제기 돼 왔던 5.18에 북괴군개입 논란은 일종의 사회적 금기처럼 돼 오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공론의 장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 했다.

그러던 차 5.18단체들이 33주년 5.18 추모 정부행사에 야권 민중의례에서 애국가를 밀어내고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노래로 지정하지 않으면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5.18에 대한 논쟁이 재연 된 가운데 13, 15일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 방송사가 5.18당시 북한군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방영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방송이 이래도 되는지 하는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 했다.

그러면서 박용진은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사건을 훼손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에 관련방송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하였다.

또한 YS 차남 김현철이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가로 지정해야 한다며, 임을 위한행진곡 제창거부는 역사왜곡이라고까지 비약하면서 특히 YS의 5.18특별법제정 공적을 내세우면서 5.18 폄훼 종편방송을 민주주의 역행이라고 강조하면서 박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야 국민대통합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평양에 있는 김정은도 조평통 인터넷 '우리민족끼리' 16일자 논평을 통해서 13일 '남조선 TV'로 방영된 "5. 18때 북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탈북자의 증언은 "현실을 뒤집고 진실을 외곡(왜곡)하는데 이골이 난 자들의 파렴치한 추태"라고 공세를 펼쳤다.

논평은, 5.18사태를 북과 연관된 폭도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는데 대하여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역사날조와 유언비어 방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외곡(왜곡)하는 충격적인 유언비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혁명투쟁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

이는 우리정부가 "5.18항거정신을 희석시키고 눈앞에 초래 된 통치위기를 가시며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소동을 정당화 하려는 흉심의 발로"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가로막고 파쇼독재를 재현하려는 괴뢰보수집권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벌어진 또 하나의 모략극"이라고 규정 하였다.

그러면서, 논평은 "남조선괴뢰들이 반공화국대결모략극을 조작하면서 발악적으로 날뛰어도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한 5. 18의 정신을 이어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고 선동하였다.

문제는 노동당 제1서기 및 '인민군총사령관' 김정은이 자신은 태어나기도 전인 김일성 김정일 선대시절에 발생한 5.18을 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우리민족끼리)을 내세워 새삼스럽게 시비에 끼어들어 간여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리 듯, 춘치자명(春雉自鳴)식 자백(自白)이라면 모를까...

어찌 됐건, 이로써 5.18 당시 김일성(김정일)이 특수부대원 600명을 남파하여 "김대중 석방, 계엄해제, 정치일정단축, 학원자유화"등 순수한 민주화투쟁 소요(騷擾)를 정권타도 체제전복 '무장봉기(武裝蜂起)'로 결정적시기 조성, 무력남침의계기로 악용하려 했느냐 여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을 앞당겨야 할 당위성과 계기가 마련 됐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일본 고고학자에 의해 한반도에는 구석기(舊石器)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역사적 통설(通說)이 1977년 여름 한 주한미군이 발견한 이상한 돌멩이가 30만 년 전 구석기시대 돌도끼로 밝혀짐으로서 한반도에 세계 최고(最古)의 구석기시대가 있었음이 입증되고 지난해 여름, 한탄강 수몰지구에서 1만 2천여 점의 구석기 유물이 추가로 발견됨으로서 1978년 전곡리에서 출토된 4000여점에 이어서 구석기시대 문명이 화려하게 재조명 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5.18에 북괴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는 이념성향이나 정치적 입장, 지역정서나 이해관계를 떠나 사료적 가치가 있는 증거 증언은 물론, 그 동안 남북 어디엔가 도피은신 은닉 중이었던 5.18참가자들의 자백과 사료를 재 발굴 정밀분석 및 객관적인 해석 평가를 통해서 역사적 진실규명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재연 된 이상, 5.18 북괴군 개입 여부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실증적 규명은 역사적 진실과 정의의 문제이지 특정 정파나 지역 또는 계층만의 이해나 명예 문제가 아니다. 165명의 사망자와 5천 여 명에 이르는 희생을 치른 역사적 피해자(被害者)인 호남인을 위해서도 가해자(加害者)가 계엄군이었는가, 김일성이 남파한 북괴 게릴라부대였는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역사적 진실게임인 것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예장(백석) 총회 제35회기 총회장배

전국노회 대항 체육대회 열어

정영근 총회장,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성대히 치러, 스포츠로 교단 화합 다져

지난 20일(월) 오전 9시에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예장 백석총회(총회장:정영근 목사)는 '제35회기 총회장배 전국노회대항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1부 개회예배, 2부 체육대회, 3부 폐회예배, 4부 순위 별 및 경품 시상식 등 총 4부로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국장 이의순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서 수원 노회장 이원석 목사가 대표기도를, 서정팔 목사(큰빛교회)가 섹소폰 특송을, 총회장 정영근 목사가 설교를 했다.

이어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장 서정달 목사가 환영사, 증경 총회장 유만석 목사가 축사, 백석대학교 총장 최갑종 목사가 격려사, 문화체육국 총무 안성태 목사가 광고, 증경총회장 서상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폐회예배는 문화 체육국 총무 안성태 목사가 기도를, 부총회장 이종승 목사의 설교및 축도가 있었다.



문화체육국(국장:이의순 목사)이 주최한 이날 체육대회는 전국 백석교단 소속 담임교역자 부부를 자격으로 19개 노회가 참석, 화기애애한 가운데 대회를 가졌다.

이날 종목은 배구(남7명, 여2명)와 족구(남5명), 탁구(복식 남2명, 혼복식 남1명, 여1명), 줄다리기(15~20명, 사모 5명 이상), 윷놀이(50세 이상 10명, 남7명, 여3명)이었고, 족구와 배구, 탁구는 4개조로 나눠, 21점 단세트, 본선리그 8강, 4강, 3-4위전은 11점 3세트, 결승전은 15점 3세트로 진행되고, 줄다리기는 3개조로 나눠 3판2승제로, 윷놀이는 3개조로 나눠 말 2개에 단판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성적은 각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5위 송파노회, 4위 충남노회, 3위 동인천노회, 2위 수원노회, 1위 경기남노회가 차지하고, 1위를 한 경기남 노회장이 나와 우승기와 트로피를 안았다.

이날 노회별 참가비 20만원씩이었으며, 종합우승팀에는 우승상금 100만원 및 우승트로피와 준우승과 3,4,5등에도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졌다. 아울러 참여한 노회원들은 추첨을 통하여 풍성한 경품과 금일봉이 선물로 돌아갔으며, 이날 최신형 40인치 이상 되는 LED-TV와 지펠 냉장고 등 다수의 선물이 주어졌고, 참석한 노회마다 교통비를 지급, 기쁨을 더했다.

총회장 정영근 목사는 대회사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총회 산하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장하며 일하는 총회'라는 슬로건 하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여 왔으므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몸을 부딪히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서 기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국장 이의순 목사는 행사에 앞서 "총회 산하 전국노회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지난해의 좋은 반응으로 이번에는 더욱 확산해 총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체육대회를 갖게 됐다"면서 "많은 노회들이 참가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백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힌바 있다.

kdp0920@naver.com
인천지사 곽영민 기자



신천지, 8개 맞춤전략 8단계 섭외전략으로 성도 미혹

한국교회가 양들을 이리에게 빼앗기면서 대책은 너무 미흡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쳐 놓은 8개 맞춤전략과 8단계 섭외전략 수법을 동원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26일 발표한 '8단계 섭외전략'에 의하면 신천지 추수꾼(전도자)은 '정보수집→섭외활동→열매선별→인간적 신뢰 형성→유형별 상태 진단→신앙우위 선점→유형별 맞춤 전략→복음방 등록' 순서에 따라 성도들을 포섭한다는 그들의 수법이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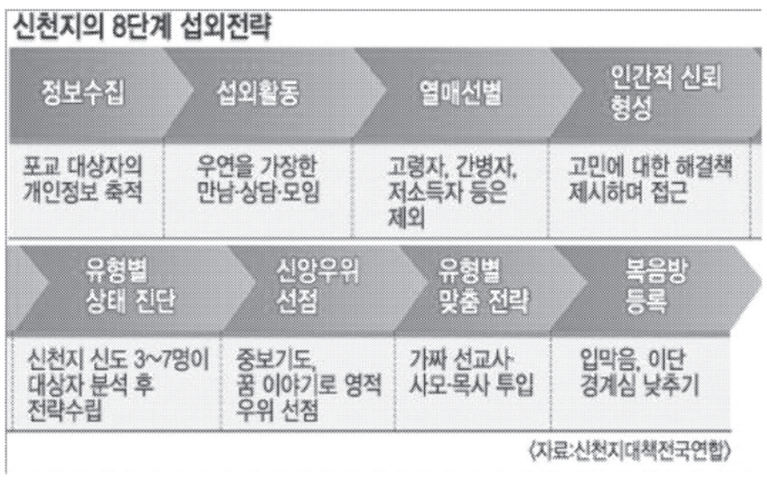
저들 추수꾼들은 성도들의 정보를 보통 신천지에 빠진 대상자의 가족, 친척, 교우, 친구, 지인을 통해 모으고 있으며, 또한 저들 추수꾼들은 기도제목, 최근 관심사, 고민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각 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기도내용을 엿듣고 기록해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섭외활동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포교 대상자와 친분을 맺는 과정을 말한다. 보통 성격, 행동 유형검사, 미술심리치료, 도형그리기, 우울증·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 등을 활용하는데, 최근엔 힐링 스쿨 수강, 연극 뮤지컬 영화 관람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활한 수법으로 섭외활동에 들어간 추수꾼은 포교 대상자를 나이, 경제력, 성품, 건강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열매선별)하며, 선별 대상자를 상대로 곧바로 인간적 신뢰 형성에 들어간다. 추수꾼들은 미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 자녀, 직장, 이성, 건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가짜 독서 지도사, 심리상담사, 건강전문가 등을 연결시켜주며 호감을 사는데 있다.

반면 이들 추수꾼은 개인 간증, 중보기도, 말씀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신앙우위를 선점하는데 이것은 포섭 대상자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자신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들어있다. 이때 신천지가 자주 써먹는 방법은 꿈 이야기다. 추수꾼들은 치밀하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집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썩은 나무를 붙들고 울더라.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등 거짓 꿈 이야기로 신앙우위를 선점하는데 이때 많은 성도들이 미혹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

또한 추수꾼은 관리자, 교사 등 3~7명이 한 팀이 되어 유형별 맞춤전략을 짠다. 이들은 선교사, 목사, 사모, 지나가는 행인, 역술인 등 가짜 콘셉트로 연기를 하며, 추수꾼이 우연을 가장해 복음방 교육을 인도할 제3의 인물을 연결시키며, 제3자는 보통 사모나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선교사 콘셉트를 써먹는다. 추수꾼은 "이분을 통해 우리 가족, 구원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는데 영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치켜세운 뒤 큐티모임, 기도모임, 성경공부에 연결시키고 있다.



〈자료:신천지대책전국연합〉

이렇게 복음방 교육으로 끌어들인 뒤 성경공부를 진행할 땐 성경구절(잠 12:23, 마 13:44, 미 7:5)을 제시하며 가족, 교우, 목회자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킨다. 포교 대상자가 신천지를 의심할 땐 오히려 "우린 신천지가 절대 아니다" "교육 내용 중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며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춘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며, 교회 밖 성경공부를 연결시킨 뒤 입막음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면 100% 신천지 추수꾼"이라며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 때문에 영적 전시상황에 놓여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언했다(cafe.naver.com/soscj). 한국교회는 이단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여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성도들을 지켜야 한다.

제7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경찰청장, 실종의 날을 맞아 실종관련 영화 '몽타주' 관람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5월 24일(금)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제7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주최,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주관했으며, 7회째를 맞은 '실종아동의 날' 행사는 실종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실종아동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더 이상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에게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이다.

주요행사로는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실종가족 수기 낭독 △'실종아동의 날' 기념영상 및 '착한 릴레이 캠페인 영상' 상영 △착한 릴레이 캠페인 선포 △착한 등신대 출정식 이벤트 △관심버스 가두 캠페인 등이 있다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신고건수는 2012년 말 기준 18,259명으로 매년 만 명 이상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아동 등의 장기실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책임을 좀 더 강조하고자 '제7회 실종아동의 날 '키워드를 '관심'으로 다양한 관심행사를 펼쳤다.

이날 관심행사는 '착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착한 등신대 출정식이 하이라이트였다. 착한 등신대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 개의 등신대로 제작하여,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를 비롯해 통행량이 많은 서울 시내 등 주요 곳곳에 설치되었다.

GPS가 내장된 등신대를 통해 실종아동 정보를 확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장소로 옮겨줌으로써 실종부모가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착한 릴레이 캠페인은 5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실종아동의 날 명예홍보대사 영화배우 엄정화, 김상경 참석

이날 행사에 제 7회 실종아동의 날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 '몽타주'의 배우 엄정화, 김상경이 참석하여 실종부모들의 염원이 표현된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선포한 후 실종유괴예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는 기념식 당일 고정욱 작가와 손재수 만화가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동화책(보람이를 찾습니다)이 무료로 배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승연 연구사, 안산시 실종가족지원센터 김관선 대표 등 실종예방 및 실종아동 찾기에 공이 큰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운영하는 어린이재단에서 실종아동 관련 재능 기부에 대한 감사로 라디오 내레이션 기부를 실천한 배우 김윤진, '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선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작가 박지은 등 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25일(토) 13:30~16:40간 롯데시네마 피카디리관(종로3가)에서 실종관련 영화 '몽타주'를 이제훈 어린이재단 회장,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대표, 기자, 일선 경찰서 실종 담당경찰관 등 50여명과 관람을 했다.

영화 관람 후 실종관련 단체와 경찰서 담당자들과 건의사항 , 고충 청취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5.30 공포예정)으로 아동 범위가 확대(14~18세미만)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어 보호대상이 확대된 만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정비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67차,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의 차이

현 시대에는 가짜가 진짜인양 전문가들 조차 식별하기가 어려웁게 모방한다. 또한 비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를 만났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께 태양신과 월신의 축제일을 기독교화 하여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헛되이 예배하게 한다.

그로 인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지는 시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므로 믿음의 근원을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에 친히 말씀 하셨다(마24:35, 막13:31, 눅21:33).

성경 기록이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이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가고 계신다.

"여호와의 말씀들은 정결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정제된 은과 같으니 일곱 번 걸러낸 은과 같다. 여호와 당신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니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시12:6,7). 하나님 말씀은 보존해 가시나 사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이란 단어는 삭제하고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고 손대지 말아라' 는 첨가하고 '정녕 죽을 것이다' 는 '죽을까 하노라.' 로 오역한 그 영이 오늘 날까지 흘러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비평하고 고고학과 과학을 빙자하여 첨가와 삭제와 오역을 하고 있다.

지난 호들에서는 교리상 문제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마태복음부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다수필사본계열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중립사본계열(WH, 개역성경)을 비교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1)마1: 6절- 다수필사본계열인 성경은 다윗 왕이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중립사본계열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중립사본계열 성경은 다윗왕을 간음자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간음사건으로 우리야 장군을 간접적이지만 죽이는 일을 행하고 정식으로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인을 맞아 간음으로 인해 나은 아이가 죽을때 철저히 회개한다.

원어 신약성경(마1:6):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흠정역(마1:6):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개역성경(마1:6):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른성경(마1:6):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2)WH는 마1:10- 아몬(Amon)을 아모스(Amos)로 바꿈, 원어 신약성경: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흠정역: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개역성경: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른성경: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3)마1: 11절- 다수필사본계열인 성경은 끌려가는 뜻으로 기록하였는데 중립사본계열은 '이거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원어 신약성경: 이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흠정역: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개역성경: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바른성경: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무렵에

4)마1: 18절-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원어 신약성경: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흠정역: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밴 것이 드러나매, 개역성경: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른성경: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5)마1: 19절- 다수필사본계열인 성경은 공개적인 본보기로 강조 하였다. 중립사본계열 성경은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원어 신약성경: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지 아니하고, 흠정역: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개역성경: 저를 드러 내지 아니하고, 바른성경: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6)마1: 22절 - 성경에는 선지자와 대언자와 선견자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는 세상일을 남보다 먼저 깨달아서 앞서 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대언자(Prophets)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주님의 특별한 상황 때에 필요에 따라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보내어져서 백성의 의무를 알려 주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죄를 일깨워 주어 회개하게 외치고 왕에게 경고하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였다. 신약시대 대언자들은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대언자가 있었다(고전12:28, 엡2:20, 계18:20). 선견자(seer)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비밀스런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몇몇 히브리 대언자에게 적용되었다(삼상9:9, 대하29:30, 33:18~19, 사29:10, 30:10; 비교 민24:3~4). 그러나 이 명칭이 마치 점을 치는 듯한 인상을 주므로 이것은 나중에 대언자로 바뀌었다(에스라 성경사전 P235). 원어 신약성경: 주께 대하여 선지자로써 말씀 하신 것을, 흠정역: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 하신 것을, 개역성경: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바른성경: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다수필사본계열 (원어 신약성경과 흠정역)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중립사본계열 (WH와 개역성경과 바른성경)

7)마1: 25절-예수님께서 첫 아들이므로 마리아가 동정녀가 된다. WH는 그녀의 맏아들을 삭제, 원어신약성경: 또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 까지 그가 그녀를 알지 아니하더니, 흠정역: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니, 개역성경: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바른성경: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다음호에 계속...



김수정 원장
본지 운영이사
H.P 010-7520-7651

사도의 의미

사도 [Apostle , 使徒]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福音)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한 12명의 제자. 12사도라고도 한다. 그리스어(語) '아포스톨로스(apostolos)'에서 유래하는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며(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3:1, 요한의 복음서 17:18)

또 신도를 교회의 사도라고 불렀다(고린 8:23, 필립 2:25). 그러나 현재 술어로서 사용하는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를 위임받아 파견된 자, 즉 12사도를 가리킨다(마태복음서 10:2~4, 마태복음서 3:14~19, 누가복음서 6:13~16, 사도행전 1:13).

12사도는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토마,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타대오, 혁명당원인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가리옷 사람 유다인데, 이 12의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支派)와 연관시켜 정한 듯하다. 후에 가리옷의 유다가 없어지자 마티아를 선택하여 12제자 중에 넣었다(사도행전 1:15~26).

사도의 자격으로는 주(예수)를 친히 뵈온 자로 부활하신 주를 경험하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누가복음서 24:48, 사도행전 1:8,22, 고린 9:1).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신 자에 한정하지 않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위임받은 사람도 실질적인 사도라 하였는데(1고린토인에게 보내는 편지 9:1,2, Ⅱ고린토인에게 보내는 편지 12:11,12), 바울로, 바르나바 및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로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사도행전 14:14,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1:19, Ⅰ고린토인에게 보내는 편지 15:7).

이들 사도는 원시교회에서 권위자로서 높은 신분의 소유자이며, 전통의 소유자로서 성경 정경(正經)과 신조(信條)의 성령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보니파티우스를 '독일인의 사도', 사비에르를 '동양의 사도'라고 하는 등 어느 지방 또는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사도라고 불린다.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열두 신도를 제자 또는 사도라고 말한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지만, 사도는 누군가가 보낸 사람, 즉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다. 배반자 유다가 자살한 뒤 나머지 열한 명의 제자/사도는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맛디아를 발탁했다. 사도행전 1:21~22는 맛디아를 포함한 열두 명이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를 따랐다고 전한다.

예수의 사도들은 보통 '12사도' 라고 불리지만 나중에는 열두 명이 넘었다. 바울, 바나바 등 원래의 사도 열두 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원래의 열두 명은 모두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 바울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본 환영에서 예수를 만났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었다. 사도들은 모두 복음을 전파하러 세계 각지로 떠났는데, 처음에는 동포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나중에는 비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

가장 유명한 사도인 바울은 '비유대인을 위한 사도' 라고 자칭했다. 바울의 서신들 중 몇 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부터"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베드로의 두 서신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교도들은 사도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사도들의 이름으로 교회, 학교,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 신약성서는 대부분 사도들이 쓴 것이다. 가톨릭교회와 정교회는 열두 사도를 위해 특별한 축일을 정했고, 바울, 바나바, 맛디아에게도 축일을 부여했다. 대규모 교회에는 열두 사도를 기리는 조각상이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아이러니다.

열두 사도 중 몇 명은 성서에서 아주 사소한 인물로 나오므로 우리에게 거의 알려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설은 풍부하다. 대부분 아주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순교했다는 이야기다. 그중에는 사실에 바탕을 둔 전설도 있다.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사도행전」이라는 오라토리오와 속편인「주의 왕국」을 썼고, 리하르트 바그너는「사도들의 애찬」을 작곡했다. 화가인 알브레히트 뒤러의 드로잉「어느 사도의 손 습작」은 많은 그리스도교도들이 집에 소장한 '기도하는 손' 그림의 원형이다.

4대 복음서 중 유일하게 누가복음은 무려 일흔 명에 달하는 사도들의 대규모 집단을 언급한다(옛 복음서로는 일흔두 명이다). 예수는 사도들을 두 명씩 짝지어 촌락과 마을에 미리 보내 영적인 길을 안내했다. 그들 중 일부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누가복음 10:1~20).

그리스도교의 오랜 신경(神經)들 중 하나로 사도신경이 있다. 수많은 그리스도교도들이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옛 전설에 따르면 사도신경은 열두 사도 각각 한 명이 한 소절씩 지었다고 한다. 실제 사도들이 죽은 뒤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최초의 그리스도교도들이 지닌 믿음을 모았다는 의미에서 사도들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도 단체들 중에는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것이 많은데, 신약성서 사도들의 신앙심에 뿌리를 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다.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의 교회들은 '사도의 계승' 을 믿는다. 즉 주교들은 사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따라 서임된다는 것이다. 사도들 이후 세대에 속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사도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교부(Apostolic Father)라고 불리기도 했다.

사도/// 140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은 세공인들이 '사도 숟가락' 세트를 만들었다. 모두 열세 벌이었는데, 손잡이에는 각각 예수와 12사도의 이름과 작은 조각상이 새겨졌다. 이 숟가락 세트는 대개 대부나 대모가 갓 세례를 받은 아기의 가족에게 주었다. 부유한 사람은 한 세트를 주었으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숟가락 하나만 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숟가락은 '스승 숟가락' 이라고 불렸고 나머지 것들보다 컸다.

간혹 바울도 포함되어 모두 열네 개가 한 세트를 이루기도 했다. 당시에도 그 숟가락은 귀중한 재산이었으며, 지금은 골동품 수집가들이 매우 탐내는 물건이다. 미국 위스콘신의 슈피리어 호에는 사도의 섬들이 있다. 섬이 열두 개라고 생각한 초기의 전도사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실은 스물두 개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 라고 자칭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생겨났다. 가장 유명한 것은 182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생 열두 명이 처음 조직한 '케임브리지 사도들' 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캠퍼스 내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자부심으로 그런 명칭을 붙였다. 이 단체는 지금도 토론과 사교를 겸한 일종의 클럽으로 존속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홍요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
학장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혜망원
예/배/시/간/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2013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문화교실
담임목사 오종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교단탈퇴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원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및 평동노회를탈퇴합니다.
화원동산교회
권창수 목사 외 성도일동
2013년 5월 26일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여종 특별할인
♣참석자 전원에게「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겸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 교회!
담임 서정환 목사
1.실천 목표
1. 제사장 나라 된의 실천 목표
1) 교육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시126편5~6절)
2) 선교를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행13:1~3절)
3) 섬김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교회(빌4:10~20절)
2. 거룩한 백성 된의 실천 목표
1) 주일을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신5:12~15절)
2) 말과생각에 실수하지 않는성도(약3:1~12절)
3) 약한자를 배려할 줄아는 성도(롬14:1~12절)
(445-380) 경기도 하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장로 : 신호균
담임목사 이이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예닮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서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담임 이재성 목사
관악구 신원로 3길 59-9(8/2) (구.신림1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다니엘서 3장 강해 (VIII)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은 네 가지 옷의 계시

불에 던져졌으나 불타지 않고 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서 거닐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랍도 주님 손안에서 주장되어짐, 일원론적인 신앙을 깨닫지 못하여 시련을 격는 것이다. 바람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다.

계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어다. 환란 날에 이 세상 전체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성도를 짓밟고 죽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힘이 강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을 품꾼으로 부리시는 것이다.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순교케 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동안 지복천년을 누리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최고의 복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원론 신관을 믿는 성도는 환란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이 환란에서 우리 목숨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문과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과 돌에 맞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상하여 죽는 것을(히11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당히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다. 풀무불이 평소보다 칠 배나 뜨거우므로 멀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어 던진 용사들은 불에 타 죽었다. 그 하나님인가 하여 느브갓네살은 풀무 입구까지 가서 보았지만 불타지 않는다. 불이라는 것은 사르게 할 자는 사르고, 사르지 못하게 하는 자는 사르지 않는다. 느브갓네살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조물주의 뜻대로만 쓰여 지는 것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무서워하지 않고 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18절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불살라 죽게 될지라도' 이다. 왜 하나님이 불살라 태워 죽이라고 허락하실까요? 피조물 불은 불사르게 허락하니까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죽임당하는 죽음, 이것은 순교의 죽음이다. 순교의 죽음에는 순교자의 영광이 따른다. 주의 재림 때 있는 첫째부활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불사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만 살다 보면 똑같이 순교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은 네 가지 옷의 계시(21절)

성경에서의 옷은 일반적인 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너희가 벌거벗었으니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볼 때 벌거벗었다는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다니고 있다.

'그들이 누구냐?' 할 때 그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성의 표현을 옷 입은 것으로 표현했다. 이들이 옷을 많이 입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옷을 많이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내용을 말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의' 위에 '속옷'을 입고 '속옷' 위에 '겉옷'을 입었고 '겉옷' 위에 '별다른 옷'을 입었다. 네 가지 옷을 입어서 승리하듯이 우리도 이 네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계시한다. 또한 그것의 영적의미를 알아야 된다.

①고의(拷衣), 고의는 출28장 42절에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의 부분 곧 하체를 가리는 것이다. 모자(hats, KJV)로 번역된 다니엘서 원문을 바르게 번역하면 '고의'다. 고의는 정욕이나, 음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가리 우는 것이다. 그것들이 나오지 않게 한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몸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 2장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 진 것이다. 그러면 고의를 입은 것이다. 음란과 정욕이 하체가 가리워진 것으로 인하여 나오지 않게 된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나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를 주장해서 나오는 죄의 열매, 불법의 결과들은 다 하체에서 나온다. 고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고의를 입은 것이다. 고의는 제일 먼저 입는 옷이다.

② 속옷, 속옷은 속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다. 이것은 온 몸이 하나도 썩어질 것이 없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몸이 되어 지면 곧 속옷을 입은 것이다. 롬 8장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죽을 몸을 성령이 살려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몸으로 살아가게 한다.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이 몸으로 섞어지는 것으로 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위하여 의의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한다.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내 몸을 통해서 사랑도 하게하고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은 속옷을 입은 것이다. 우리 죽을 몸이 성령에 의해서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③겉옷, 겉옷은 신분을 나타낸다. 엘리야의 겉옷이 털옷이다.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엘리사가 받아 입었다. 엘리사가 입었던 선지자의 옷이 선지자의 마지막인 세례요한이 그 털옷을 입었다. 그 옷이 겉옷이다. 이 겉옷을 세 친구들도 입었다. 그 겉옷은 약대 털옷이다. 약대는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도 약대가 운송하는 도구로 쓰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대에게 생수통이 있어서 그렇다. 사막의 뜨거움 같이 고난과 환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하늘의 속한 기쁨을 가진 생수 같은 시원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약대 털옷이다. 오늘 우리도 약대 털옷을 입으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오지 않게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엘리야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기근 이고 가뭄이다. 영적으로 황폐화 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비를 오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가뭄과 같이 피폐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알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전부 다 버리는 것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다. 이것은 선지자가 겉옷을 입은 증표다. 기근, 즉 환란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우쳐 복되게 하는 역사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겉옷을 입은 표다.

"우리 죽을 몸이 성령에 의해서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리심을 받음"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웨신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상담학박사 박경혜 "상담학" 특강

사도영성신학원 상담학박사

Q : 저는 현재 자신의 진로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청년입니다. 저는 3 세살 때부터 맞벌이하는 부모님에 의해 홀로 사시는 할머니의 손에 의해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깐씩 왔다가는 부모님들께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던 저는 자라면서 애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른들에게 칭찬을 들었으며 학교 성적은 항상 1-2등을 유지하고 반장을 여러 차례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비만한 후로 정상체중이 된 지금까지 바지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는 얼굴이 동안인 제가 사람들에게 귀엽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좋았으므로 어린애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을 꼼꼼히 처리하여 신임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끝내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주위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 번 이상 만나기가 두려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실직을 당했다고 말하면 갑자기 상대방에서 확 쏠리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제 자신도 저의 이러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상한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앞으로 저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은 자매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

A : 자매님! 오늘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자라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매님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군요. 자매님은 혹시「성인아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지요? 「성인아동」이란 몸은 성장해서 어른인데 유아기 때의 많은 것들에 의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요. 함께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보면서 생각을 나누어볼까요?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유아기에 할머니 댁에 맡겨져 매일 저녁이면 잠깐 왔다 가는 부모의 드나듦으로 환경에서 오는 혼돈과,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의존욕구가 좌절됨으로 겉으로는 포기하고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어린이로 자란 것 같으나 그 내면의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여 양가감정이 현재까지 늘 작용을 하는 것 같군요.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을 초등학교 때에는 먹는 것으로 포만감을 가지다 보니 비만해져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고 그때의 신체적인 열등감이 지금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데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면으로는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적절하지 못했으므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귀엽다는 소리에 오히려 행동과 말씨조차도 어린애처럼 하게 된 것은 자신이 퇴행함으로 유아기 때의 부족함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적인 욕구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매님, 이러한 마음속의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 자매님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대단히 강한 것 같군요. 자매님에게 있어서 인정욕구는 대단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신임을 얻고, 신앙이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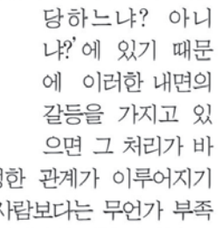
이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되니만3-6세 시기에 성(性)의 역할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때에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홀로 사시는 할머님과 생활했으므로 이상적인 남성형보다는, 약한 자에게는 거절감을 덜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늘 거침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거절 받음을 당했을 때의 내면의 문제가 아직도 자매님의 무의식세계 속에 상처로 남아 있으므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마다 자매님의 관심은 '내가 거절당하느냐? 아니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처리가 바빠서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갖춘 사람보다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거절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편안함과 끌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 이제는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상대방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떠할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던 난장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나무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나 집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유아기 때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할머니 댁에 자매님을 맡기고 그 바쁘고 힘든 중에도 얼마나 자매님을 사랑하셨으면 매일 밤 할머니 댁에 들리셨겠어요? 이제는 성숙했으니 부모님이 나를 떼어놓고 갔다는 생각보다는 부모님의 크신 사랑으로 기억해보면 어떨런지요?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은 자매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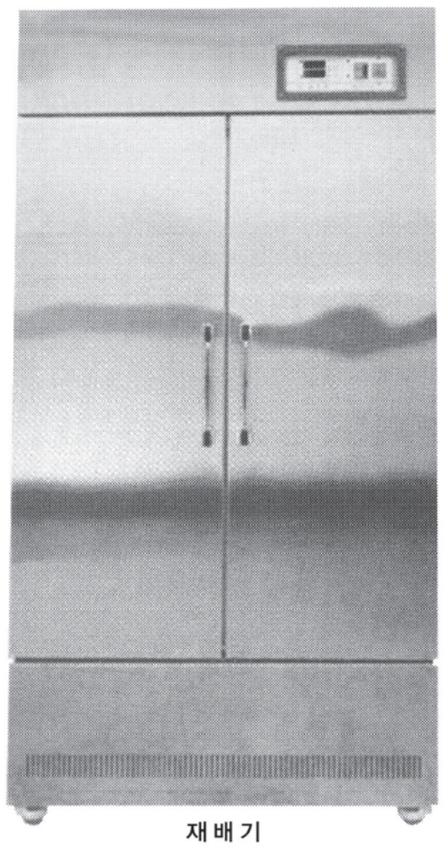
박경혜
상담학박사

온천하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희소식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
★ 특허 제10-0617624 ∩형 배수관 콩나물 재배상자
★실용신안 제0351095호 침수식 콩나물 재배상자



침수식 콩나물 · 숙주나물 재배기 출시


재 배 기

● 특징 및 장점

※생산자
★ 익일 생산량 판매시 한 가정의 주 수입원이 된다.(일 6㎏ 이상)
★ 좁은 공간에서 작업 생산이 용이하다.(H 1980mm W 4410mm D 800mm)
★ 물의 소비량과 전기 소모량이 적어 생산비가 저렴하다.
★ 어느기관에서 검증해도 무독성이다.(독성 무검출)

※소비자
★ 생식용으로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주식으로 사용가능)
★생주스로 갈아마실 시, 즉시 체온상승을 느낄 수 있으며 3일 후 몸의 변화를 느낀다.
★장기 섭생하면 식원병으로 인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치료하신다. (식원병 : 변비, 관절병, 고혈압, 당뇨, 아토피, 비만, 독소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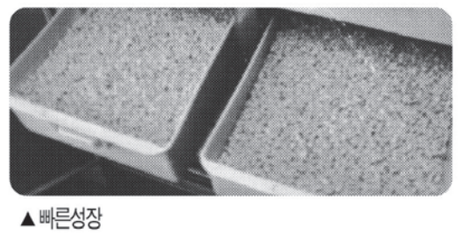
※사업자
★가정, 식당, 교회, 기도원, 요양원, 아파트 노인회, 미자립교회, 선교지 공공기관 공동체, 사회적기업, 해외수출 등등 많은 판매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선물


집사 최영식
주사랑교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모든 음식에서 비롯된 (식원병환자) 질병과 허약함을 완전 해방시키는 특수(콩나물, 숙주나물) 재배기를 저로 발명케 하셨습니다.


▲알찬성장
· 3㎏의 콩이 9㎏의 회강석을 들어 올리며 성장
· 회강석 하중으로 콩나물의 웃자람억제, 알찬 성장 유도


▲빠른성장
· 재배 3일만에 콩나물 성장 완료, 1일 60㎏, 300g 기준 200봉지의 신선한 콩나물을 매장에서 매일 아침 생산

● 검 증

대전 소재 광음교회 이용덕 목사님(시무)
2년여에 걸쳐 '버리지 않는 전도지' 동영상을 You Tube에 올려 놓으심
교회주소 : 대전시 서구 도마 2동 316-7 / H.p : 010-4491-7757 / 010-9372-1163 / Tel : 045-525-1163

판매처 : 팜메이커(주) 대표 최영식
☎ 010- 8852-766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62-7
딜러 모집
010-8852-5766

용서는 하나, 6.25전쟁은 잊지 말자

(본문 : 에베소서 6:10-17)

오늘은 6.25전쟁 63주년 주일 새벽에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용서하되 6.25는 잊지 말자 하는 제목입니다.

1.왜 우리는 6.25전쟁을 잊었는가!6.25전쟁은 북한 인민군 제2군단이 1950년 주일새벽(6월 25일)에 개성에서 포문을 열고 소련제 탱크를 타고 밀어닥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만에 의정부를 탈환하였는데 결국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끊어진 한강다리를 넘어서 대전과 대구로 임시정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4-18년까지 4년간 있었던 1차 세계대전, 1939-45년 까지 6년 동안 있었던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해 볼 때 6.25전쟁은 1950년부터 3년 밖에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여타 전쟁에 비교해 보아 가장 많은 624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6.25를 통해 남한은 43%의 산업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괌 KAL기사건, 와우 아파트는 잊어버려도 6.25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원호병원엔 60여 년 동안 병원에서 지내는 전쟁부상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6.25전쟁은 우리가 준비 없이 있다가 비극을 당했다.6.25당시의 대한민국의 군 장성들은 댄스파티에 갔으며, 사병들은 휴가 나오고 평화로울 때, 이북은 전쟁준비를 하여 전진했으나 우리는 야포 몇 개로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 32장 9-10절에서"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기름준비를 하지 못하여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번쩍 차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 한 곳이라도 바로 된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성도들의 기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이 방법이요 기도만이 길이며 기도만이 문제를 푸는 열쇠다.

3. 이제 온 국민은 정신 무장을 하자. (베드로전서 4:7절)온 국민은 정신무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가 정답이니 오직 예수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상태를 갖고 이북과 통일된다면 이북에게 먹히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4. 온 성도는 영적 재무장을 하자. 북한은 무신론 국가임을 바로알자. 사회주의 공산당은 마귀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데, 우리는 영력을 얻어야 합니다.

갈멜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력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맘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할렐루야! 온 성도는 용서는 하되 6.25전쟁만은 잊지 않도록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주여!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갈멜산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이것이 기도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용서하되 6.25전쟁만은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효은 목사
화정충현교회 담임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언론인 부흥사회 총재

칼럼

잊혀져 가는 6 · 25

"아 아! 잊으랴 어찌울이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물리쳐, 이제야 빛나리 이나라 이겨레!!

얼마나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인가! 6 · 25를 기해 우리 모두 합창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해 돋는 아침의 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있는 동방예의지국, 동해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 시계도 라디오도 귀하던 조용한 촌락마을!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순박한 우리의 선조들은, 가난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나누며 살아 왔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모심기가 거의 끝날 무렵, 북한 공산당이 처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정처 없는 피난길을 떠났다.

북한 김일성은 1950. 6. 25 새벽 남침하여 순식간에 강원 서울 경기도를 점령 하면서 남한 전체를 공산화 시키려한 것이다. 점령당한 지역에서는 북한 인민군 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녁마다 주민전체를 모아 놓고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쳤으며 우리의 우익 인사들을 신고하라고 계속적인 정신교육을 시켰다.

당시 마을에서 일꾼(머슴) 무학자들을 앞장세워 왼팔에 붉은 완장을 채워주고 대나무 창을 주어 거리마다 보초를 세워 우익인사 체포에 혈안이 되었다. 그들이 우익인사(공무원 · 경찰 등)를 체포해 오면 저녁에 부락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로 명패를 가슴에 달아 주면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게 하고 사기를 진작 시켜 주었다.

피난길에 오른 우익인사들은 산속에 들어가 칡넝쿨 등 소나무 진액으로 배를 채우며 손으로 풀을 뜯고 나무를 하는 등 하여 손과 발을 농민처럼 만들어야 했다. 길을 가다 완장을 찬 보초에 걸리면 손을 보여 농민 이라는 표시를 보여주어야 통과 할 수 있다. 만일 손발이 깨끗하면 즉시 체포해 유치장에 가두었다.

당시 인민군들은 경찰서를 차지하고 자위대와 인민위원회가 공동 사용했다. 면단위 지역은 자위대원들이 면사무소를 차지하고, 우익인사를 체포해 오면 옷을 완전히 벗겨 전기선으로 뒷결박하고 무릎을 꿇려 무릎과 엉덩이 사이에 나무토막을 넣어,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중에 참나무 몽둥이로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때려죽이는 악랄한 살인을 저질렀다.

어느 지역 자위대장은 우익인사 여섯명을 같은 수법으로 한자리에서 때려죽이는 처참한 악랄한 살인을 했다. 그 자위 대장은 같은 동내 사람으로 인민군으로부터 붉은 완장을 찬 사람이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혈족도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면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사상개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9 · 28수복으로 인민군들은 후퇴하면서 너무도 잔인한 살인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을 한 가지 더 말 할 수 밖에 없다. 후퇴 명령을 받은 인민군 들은 대전교도소(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우익인사 천여 명을 하루 동안 일시에 살인한 내용이다.

당시 대전 형무소에는 대형 우물 3개가 있었다. 직경이 3m, 길이 50~70m의 '우물로 수감된 인원 들이 사용했다. 인민군들이 선정 분류한 악질 인사 300여 명은 옷을 벗기고 한 줄로 세워 우물 앞으로 가도록 하여 각목으로 머리 후두급소를 때려 실신한 상태에서 우물에 거꾸로 쳐 넣어 죽인 것이다. 한 개의 우물에 백여 명씩 우물에 쳐 넣어 일명 살인 장아찌를 담은 것은 것이다. 세 개의 우물에 약 삼백 명이 죽은 것이다.

우물에 시체가 차면 20cm이상 되는 나무토막 우물 덮개를 덮고 두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돌을 눌러 모두 질식사 시킨 것이다. 나머지 칠백여명은 형무소 마당에 약 1미터 정도의 호를 줄지어 파게하고 뒷결박 상태로 줄 세워 따발총으로 동시에 총살 시킨 것이다. 공산당이 너무도 자인한 살인 행위에 울분을 토해도 시원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악랄한 살인 행위는 세계에서도 없던 일이다.

이러한 6 · 25의 참상을 우리 곁에 두고 일부정치 좌파세력들은 6 · 25가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는 역사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철저히 차단시켜 확실한 역사 교육으로 자라는 세대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시켜주어야 한다.

정부는 다시 6 · 25행사를 시행해야 한다. 6 · 25의 노래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국민이라면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좌파진영의 얼굴을 의식치 말고 철저한 반공교육으로 국토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학생들의 강인한 의지를 키워야 할 것이다.

6 · 25의 참상은 우리민족사의 가장 아픈 역사이다. 6 · 25남침 전쟁 63주년을 맞으면서 비참한 고통과 죽음으로 순직한 선조들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오늘 살아 있는 국민 모두가 두주 먹을 불끈 쥐고 공산주의와는 대화도 타협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말(言) 성경:(잠언16:23,24,) 요절(마12:36,37약1:26, 3:2,8~11)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 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23-24)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약 1:26)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 레 씌우리라.(약 3:2).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약 3:8)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약 3:9)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약 3:10).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약 3:11).

예수께서 가라사대"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

① 날개도 없는데 빨리 멀리 날아가고, 발도 없으면서 이곳저곳 잘도 간다, 제자랑 아니면 남의 흉뿐인 것들이, 아서라! 진리사랑 아니면, 입막음이 어떠하랴!?

② 창살도 아닌데 찔러 상처 극심하고, 칼날도 아닌데 잘라 손실 요란하다, 혀로 놀려대고 입으로 토한 것들이, 슬프다! 상처 손실뿐이면, 입막음을 비웃을까!?

③ 진리와 지혜로 혀와 입을 다듬어서, 진리와 사랑이 이곳 저곳 보내지면,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 되나니, 옳거니! 우리 모두 말하세, 진리사랑 그것들만!?



박한규 목사
예장총회 신학연구원 /
예장개혁 강북신학교

이실 직고

무조건 '옳습니다'로 출세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옳습니다'만을 사랑하는 윗분들이 있다면. 이조 숙종 때의 일이다. 당하관 벼슬에 있던 이 관명이 어사(어사)의 직함을 갖고 영남지방 사찰을 나갔었다. 이 관명이 돌아가자 임금은 그를 불러 물었다.

"그래, 그대가 이번에 돌아본 염남은 어떻던가요? 관리들이 민폐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마음이 곧은 이 관명은 어떤 후궁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섬에 대해 이실직고하였다. "황공하오나 한 가지만 아뢰옵나이다. 통영 관할 밑의 섬 하나가 어인 일인지 대궐식구 가운데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로 그 섬은 관리의 수탈이 어찌나 심한지 백성들의 궁핍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임금은 화를 벌컥 냈다. 철여의를 들어 책상을 내리쳤다. 책상이 박살이 났다. "내가 그 조그만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것이 그렇게도 불찰이란 말이오!" 이 관명은 그러나 태연자약하였다. "그 일로 저를 그리 탓하신다면 물러나겠습니다. 파직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더욱 목청을 높였다. "그만 둘 테면 그만두시오!" 임금은 승지에게 당장 전교를 쓰라고 명하였다. 승지는 당황한 빛으로 붓을 들었다. "전수의어사 이 관명에게 부제학을 제수한다." 승지는 의외의 분부에 놀라면서 교지를 써 내려 갔다. 임금의 명은 계속되었다. "또 한장 쓰시오. 부제학 이 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한다." "또 한장 쓰시오. 홍문제학 이 관명에게 호조판서를 제수한다." 이리하여 감투가 달아날 줄 알았던 이 관명은 도리어 삼계급 특진이 되었다.

임금은 이 관명을 가까이 불러 말하였다. "경의 충간으로 내 잘못을 깨달았소. 법 앞에는 어느 누구도 평등하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신념을 변치 말고 일해 주기 바라오." 당신은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중흥교회
담임 엄신형 목사 (직전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전화 : 02)476-713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 요 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예배안내
주일 오전1시 오후 3시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새벽 5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A] 319동 1803호 http://ezob.org
☎ 02)414-1191 H.P 011)775-5154 010-4611-3221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청각장애인지방연합 대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 2층
문의:010)4611-3221

쉴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예배안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아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셉트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 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리교회
담임 오상렬 목사 (본지상임이사)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가정예배

'6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원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말씀 : 사도행전 13장 4-12절 찬송 : 380장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바보에 도착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며 방해했습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시디아 안디옥

말씀 : 사도행전 13장 13-31절 찬송 : 370장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시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 곳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메시지의 중심인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 사도행전 13장 32-33절 찬송 : 267장

구약성경 곳곳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의 여러 구절을 예로 들어 약속의 성취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여겨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 사도행전 13장 34-37절 찬송 : 267장

바울은 예수님과 다윗을 대조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죽은 후 묻혔고 썩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썩으심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 사도행전 13장 38-41절 찬송 : 426장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며 둘째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의롭하 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른 반응

말씀 : 사도행전 13장 42-44절 찬송 : 428장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반대로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척하는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성령을 이길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 : 사도행전 13장 45-52절 찬송 : 430장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서 신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 삶이 변하게 됩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들

말씀 : 사도행전 14장 1-7절 찬송 : 351장

바울은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 바울 일행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둘로 나뉘는 현상은 영적 세계에 늘 있는 일입니다. 둘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기적이 임하는 곳

말씀 : 사도행전 14장 8-10절 찬송 : 540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이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걸어 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복음 증거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

말씀 : 사도행전 14장 11-18절 찬송 : 569장

바울이 루스드라의 앉은뱅이를 일으키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동의 내용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그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밝히고 이런 이적은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통한 승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사명을 다해야겠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말씀 : 사도행전 14장 19-20절 찬송 : 488장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데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유별났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도 복음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갔으며, 더베까지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된 여행

말씀 : 사도행전 14장 21-25절 찬송 : 434장

바울 일행은 가는 곳 마다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환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용기를 복돋우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영행은 복음을 위한 복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여행입니다.

◇기쁨의 보고

말씀 : 사도행전 14장 26-28절 찬송 : 265장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 일행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바울일행은 그들에게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기쁨의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은혜로 얻는 구원

말씀 : 사도행전 15장 1-11절 찬송 : 310장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교회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일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임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은 이방인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화

황무지에서도 피는 꽃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황무지 같은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 건강으로 인하여,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풀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황무지 같은 가정과 직장, 정치 현실 등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황무지라고 해서 항상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황무지에도 오아시스는 있고 꽃들을 피울 수 있다.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요한 세바스챤 바하' 일 것이다. 그는 황무지 같은 가정환경 속에서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황무지에 핀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의 부모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지만 형은 자기가 먹여 살려야만 되는 동생을 몹시 미워하였다고 한다.

마리아와 결혼하였지만 일곱 자녀를 낳고 바하가 레오폴드 후작과 연주 여행을 떠난 사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바하가 집에 돌아 왔을 때는 이미 장례식까지 끝난 뒤였다. 다시 결혼하여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 중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었다.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황무지와 같았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열 자녀가 먼저 갔다. 그의 자녀 가운데는 정신박약아가 있었다. 노년에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고 뇌일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었다.

둘째 부인 안나 마그달레나가 1760년 2월 27일에 죽었을 때 장례 치를 형편이 못되어 장례식은 빈민구제를 위한 조치로 치러졌을 정도이다. 참으로 황무지 같은 환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작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 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는 정직하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황무지 같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웠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첫 번째 글자들이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의 첫 부분에는 I.N.J 즉 "예수 이름으로"라고 적어 놓았다고 한다.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바하의 가문에는 약 200년 동안에 걸쳐 저명한 음악가가 50여 명이 나왔다고 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6세에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의고 18세에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인생은 황무지의 연속이었다. 젊은 날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선고를 받았고 36세에 결혼하였지만 아내가 43살의 나이에 결핵에 걸려 죽고 말았으며 아들마저 추위로 죽었다. 자신은 간질병으로 평생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황무지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백야, 죄와 벌,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등과 같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웠다. 그의 대표작인 '죄와 벌'은 그의 나이 44살에 쓴 것이다. 그 때는 가장 그의 인생에서 위기를 당할 때였다. 빚쟁이에 시달려 4년간 도망 다녀야 하였고, 아내와 형이 죽을 때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황무지를 극복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황무지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황무지에도 꽃은 피울 수 있다. 길이 막히면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신호이다. 하나님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55:22)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 16:3)"라고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신다. 아이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여도 분만의 과정을 거쳐야 건강한 한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출처 : 황무지에서도 피는 꽃 / 김필곤

국제 자연치유 선교 학술회

1. 일시 : 매주 부부세미나 월요일 6월 3일(월), 10일, 17일, 24일까지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까지)
2. 장소 :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교회
주소 :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390번지 / 김창룡 목사 시무
문의 : 031-354-7591,031-354-7891, 011-204-6795, 011-287-0691,
010-7172-0675, 016-348-6374
3. 제목 : 리딩 바디 전도법 공개 세미나
강사 : 차상기 박사 〈임상병리사/한의사〉
4. 목적 : 전도를 위한 자연치유 전문 사역자 양성
특징 : 1) 전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2) 쉽게 마음문을 열수 있다
3) 쉽게 접근 할수 있다
4) 대화가 쉽게 이루어 진다
5) 쉽게 교회로 인도 할수 있다
6) 공감대를 쉽게 이룰수 있다.
7) 전문치유 사역자가 되어 전도를 쉽게 할수 있다.
8)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참가비 1만원 ● 중식 제공 ● 준비관계로 하루 전 예약바람 ● 리딩바디 전도법 수료증 ● 참가자에게는 특별 건강태스트를 해드립니다 ● 당일 오전 9시 50분-10시 10분까지 병점 전철역 2번출구에서 봉고 대기 함
● 4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자연치유 사역 전문교육이 실시 됩니다
● 1년 2학기 코스 국제 자연치유 선교 학술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학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샤론) 전도사 : 헵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자(태국치앙마이)
장로 : 최문호 .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랑 애찬	교제의시간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반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사도영성 신학원 학생모집

이 시대의 사명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도영성 신학원은 수시로 접수 중...

⊙ 학장 : 홍요한 박사
⊙ 교무과장 : 양미상 목사, 사무과장 : 정운선 목사
⊙ 선교회장 : 선년규 장로
⊙ 선교회 총무 : 김동현 간사 : 인현숙



학장 홍요한 박사

1. 학교비전 / 교과목 소개
2. 교수소개
학장 : 홍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 미국애설랜대학원 목회학 박사 / 호주시드니 알파크로시스대학, 미국 University of Puritan 한국학장)
■ 교 수
지왕철 목사 (미국피시레이유니버시티 목회학 박사/한기보협 상임고문)
김창룡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미국CLARMONT대학원목회학 박사)
이효은 목사 (한양대학 / 총신대학원 석사, 박사)
박경혜 교수 (안양대학원/미국하와이 인터네셔날대학원 기독교상담학박사)
허 식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석사 / 한국경목총회 장)
이갑표 목사 (한영신학대학원 / 대신대학원 석사)
임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전리수호구국기도회 대표 / 예수재단 대표)
임해숙 목사 (한국농화교역자총회 증경총회장)
박용숙 목사 (연세대학원 석사 / ezob.org 이잡원장 / 주성농아교회담임)
양미상 목사 (고려대학원 / 본 교 교무과장)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대표이사)

사도들의 영성 특징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사람들이다.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첫 사랑을 살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있다.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5-3외 1필지 에스티엑스 더불유-타워 제11층 1108호
• Email: church-7@hanmail.net • 학장 : 010) 7585-1955 02)2625-0982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한기총, 'WCC 부산총회 철회하라' 전국대회 열어

종교다원, 혼합주의 WCC는 기독교가 아니다





동성연애와 일부다처제 결사반대한다
'회원교단, 단체일동 성명발표'

'2013 WCC(세계교회협의회)부산총회를 반대하는 전국대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주최로 부산역 광장에서 2200여명의 교계지도자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공동회장 하태초 장로가 대표기도를, 공동회장 박홍자 장로가 요한일서 2장 22~23절을 봉독하고, 쉐마중창단의 찬양이 있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사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온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누구 밖에 없는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라고 물은 뒤"한국교회는 여기에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보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대표회장은"WCC는 약 50년 전인 1959년, 조용한 한국에 들어와 크나큰 상처를 남긴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이며"화합하고 연합해야 할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 하나 되지 못하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비복음적, 비성경적 세력들에 항거해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인사를 통해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예장고신 동부산노회장 방성기 목사의 헌금기도로 '스위스 제네바 사절단 파견 특별헌금' 순서를 가졌으며, 기침 증경총회장 오관석 목사와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길자연 목사의 격려사와 명예회장 조경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예장개혁 총회장 정학채 목사의 사회로 윤종관 목사(예성 증경총회장), 박흥석 목사(부산기독교구(군)연합회 대표회장), 이인건 목사(기독신문사), 김경철 목사(WCC총회반대촉구위원회 사무총장), 이종복 목사(예장브니엘 총회장), 최철권 목사(기하성 부총회장), 홍계환 목사(예장합동장신 총회장)등의 특별 기도가 있었다.

이날 김창수 목사(부산신학교 학장)는 성명서 낭독을, 서상권 목사(부산기독교구(군)연합회 상임회장)의 결의문낭독과 조우동 장로(WCC 개최반대 국민의소리 공동대표)는 'WCC 부산총회 개최를 취소하라,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WCC의 개종전도금지주의를 반대한다, WCC의 동성연애와 일부다처제를 반대한다, WCC의 용공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구호제창을 선창했다.

이날 한기총은 WCC 총회 철회를 위해 사절단 발대식을 갖고 WCC 본부인 스위스 제네바로 보낼 사절단은 오관석 목사, 길자연 목사, 조경대 목사, 정학채 목사, 안명환 목사, 윤종관 목사, 이승렬 목사, 엄정묵 목사, 이종복 목사, 박흥석 목사, 박중선 목사, 이영성 목사, 최명우 목사, 김경철 목사를 선정하고 이승렬 목사의 폐회기도로 전국대회를 마쳤다.

웨신총회, 목회자 재교육은 교단발전에 큰 성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딤후2장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딤후2장15절)라는 주제로 시작된 웨신총회 목회자 연수교육이 5월 17일(금)~18일(토)오전 11시30분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4동 영광교회(담임 조강수 목사)에서 실시되었다.. 개강에 앞서 17일 오전 10시 부총회장 장창윤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총회 회계 이영풍 목사가 기도를, 인도자의 성경봉독(롬1:1~7절)으로 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무 신언창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증경총회장 임칠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1.교시가 시작되어 증경총회장 임칠환 교수는"교회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2.교시는 부총회장 장창윤 교수가"교회음악과찬양"에 대해, 3.교시는 정원춘 교수가"목회 방법론"에 대해, 4.교시는 정성택 교수는"개척 준비"에 대해, 5.교시에는 김정욱 교수가"주일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6.교시는 김상문 교수가 '일터와 선교사역'에 대해서, 7.교시에 데이비드 김 교수 '복지와 상담'에 대해서, 8.교시에 신언창 교수가 '목회자의 소양'에 대해 강의하는 등, 매 시간 열과 성의를 다하는 교수들의 열강에 감동적이었다.

2013년도 웨신총회가 주관하는 제1차 목회자 재교육을 통해 목회자들은 많은 도전을 받았다며, 목회현장에 큰 활력이 되고, 영적충전을 받았다면서 감사로 답했다.

이번 목회자 재교육 첫날 개회예배에서 부총회장 장창윤 목사의 인도로 이영풍 목사(회계)가 기도, 총회장 이재갑 목사가 설교를, 총무 신언창 목사의 광고에 이어 웨신대 박우재 교수는 이사장 한동숙 목사와 총장

목회자의 소양으로 더 큰 비전을…

박형용 박사의 격려사 및 인사를 대신 전하고,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재교육을 높이 평가했으며, 증경총회장 임칠환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저녁예배는 신학위원 정원춘 목사 인도로 총회서기 조강수 목사가 '성령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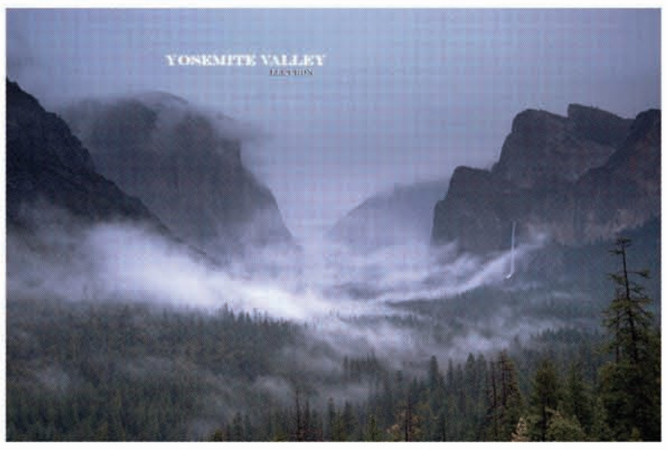
18일 새벽예배에 데이비드 김 목사의 인도로 신학위원 서기 김정욱 목사의 기도, 수도노회장 김춘택 목사가 '전인적 변화'란 주제로 설교하고 축도를, 폐회예배에 신학위원 정성택 목사의 인도로 총회 서기 조강수 목사가 기도를, 부총회장 허성인 목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라고 설교했으며, 부총회장 장창윤 목사의 축도가 있은 후 목회자 재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각각 수료증을 수여하고, 박웅석 선교사에게는 파송장을 수여하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한편 웨신총회 이재갑 총회장과 신학위원회는 자체 평가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2013년 1차 목회자 연수교육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수고한 실무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 차원 더 높은 자신감으로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무 신언창 목사는 '웨신대에서 목회자 재교육과정을 실시하는데 원론적인 합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은 2차 실무모임에서 결정되며, 재교육의 대상은 목회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로 하되, 웨신대 주최와 총회주관으로 하게 되며, 세분적인 것은 학교와 총회의 실무진이 조율해 가면서 구체적인 정관과 운영세칙을 준비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5월의 추천작



이순천 목사의 작품(대한기독사진가협회 회원)

이 작품은 켈리포니아 요세미티에 있는 브라이덜 베일 폭포가 안개 속으로 쏟아지고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마치 이쑤시개처럼 계속을 가득채우고 있는 나무들은 전봇대 몇 배 크기의 거목들이다.



김종욱 목사의 고향의 봄(대한기독사진가협회 회원)

이 작품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평생에 남는다는 느낌에 젖어본다. 국어사전에서 고향(故鄕)의 정의는 1.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2. 조상 대대로 살아 온 곳 3.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4.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된 곳을 가리킨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 예배시간 안내 ■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4: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감발달예배)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6:30	학생부예배	오후 4:30(토)
수요예배	오후 8:00	청년부예배	오후 7:00(토)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 : 김종목, 서승학,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김성기,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명예 장로 : 곽형희
· 심방전도사 : 원명숙
· 교육전도사 : 양승숙, 이민규, 전윤구
· 성가 대장 : 박남희
· 지 휘 : 조은총, 박한솔
·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인천 서구 가좌동 4-24 Tel) 032-575-1654 Fax)032-581-3723 http://www.youngkwang.net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강남복된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복된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3년도 목표 :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 김경자
· 전도사 : 장성철,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주)포유글로벌테크 최웅섭 회장 『최웅섭이야기』 펴내

21세기형 비즈니스 선교 해법제시
전 세계 10개국서 대형건설프로젝트 등 성공스토리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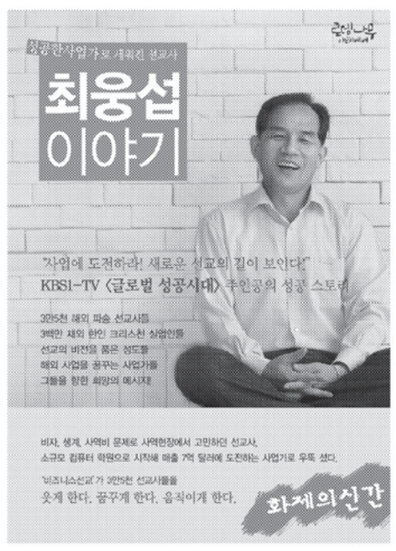
종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사용하실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삶의 증거이고 간증"이라고 전했다.

월매출 3백 달러의 컴퓨터 학원으로 시작해, 매출 7억 달러에 도전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우뚝 선 선교사가 있다. 바로 최웅섭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한국 교계에서 더욱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사업의 '사' 자도 모르는 선교사라는 점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는 현재 ㈜포유글로벌테크 대표이사 및 회장인 동시에 포유장학재단 이사장, 포유국제NGO재단 이사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제3통상위원장 지회장, 대신총회신학교 이사, 한국인터넷 선교학회(SWIM)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선교총괄목사로 평촌 새중앙교회(박중식 목사)를 섬기면서 강의와 순회선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KBS-1TV 글로벌 성공시대 주인공이 된 그의 남다른 '비지니스 선교'는 전 세계 3만 5천 선교사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때론 유쾌하고, 가슴 뭉클한 그의 성공스토리가 눈길을 끈다.

"사업에 도전하라! 새로운 선교의 길이 보인다!"

누군가 걷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건 고독과 외로움이 수반된다. 그것은 오롯이 개척자만이 짊어져야할 숙명과도 같다. 때론 예기치 못한 핍박도 감내해야 하고, 남모를 고민과 갈등으로 포기를 수차례 곱씹을 때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비즈니스선교에 한 획을 그은 이가 있다. 그가 바로 최웅섭 선교사다. 그는 최근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최웅섭 이야기〉(로뎀나무아래에서)를 펴냈다.



이 책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선교의 키워드는 물론 사업가와 선교사가 상생하는 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의 애환과, 성공적인 사역의 핵심을 간파하면서 다양한 성공 키워드를 상세히 담고 있다.

특히 이슬람 국가의 파송 선교사로서 겪어야 했던 비자, 생계, 물질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진솔하게 담아낸 대목은 깊은 울림을 준다."선교도 사업도 이론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이론으로 무장한다고 해도 현실과 직면하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복병을 수시로 만나게 되는 것이 선교와 사업이기 때문이다."

1부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아제르바이잔에서의 13년을 다루고 있다.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업가의 길로 차근차근 인도되어간 과정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특히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선교사와 사업가 사이에 정체성을 놓고 고민했던 심적 괴로움과 개인적인 생각, 주님이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세운 목적과 이유에 대해 솔직한 심정도 엿볼 수 있다.

2부는 비즈니스 선교 입문에 필요한 핵심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 선교도 사업도 이론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최웅섭회장의 지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 역시 이론과 훈련만으로 덤벼들었다가 제대로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성공키워드만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장밋빛 성공 스토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내적 갈등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토대로 현실감 있게 전해주고 있다. 선교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선교지의 혹독한 현실과 사역을 인지시키는 훌륭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삼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회장은 "21세기 한국적 비지니스 선교의 중요 모델이자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최선교사님은 이슬람 지역 전방개척지역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펼쳐 왔다"면서 "몸소 체험을 통해 얻은 비지니스선교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책"이라고 말했다.

사실 전방개척지역에서 선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세 가지 문제는 거주와 비자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어떻게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의 열매가 변변찮으면 교회 후원이 저절로 끊어지기 때문에 선교사 가족의 생계문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정국선교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도 이번 책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책을 읽는 순간, 낚시 바늘에 물린 것처럼 끌려가고 있었다"며 "다 읽고 난뒤 마음은 후련했다. 이 책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었고, 선교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필수 교과서처럼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다.

이 같은 최웅섭 회장의 혁신적인 비즈니스선교에 일찌감치 눈뜬 박중식목사도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박목사는 "비즈니스선교는 앞으로 남은 3천여 미전도 종족을 향해 꼭 필요한 선교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변방

어둔 터널 지나 밝은 빛으로

12년간 군인 시절을 보냈다는 이력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인정 많고 책임감이 남달랐다. 호방한 웃음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흐뭇한 표정, 묘하게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귀 기울여주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세 무장해제 시키는 여유마저 넘쳤다.

그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터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바울선교회에서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 파송 받아 10여년 넘게 그곳을 섬기고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최웅섭 회장은 새로운 한국형 비즈니스 선교의 개척자로 인정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파송 받은 후 정확하게 끝을 맺는 특유의 뚝심으로 성공을 일군 '입지전적' 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날이 갈수록 선교지가 좁혀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평신도 선교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선교 역시 어려워져가고 있는 선교 환경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초창기에 '비자'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그는 컴퓨터 5대로 컴퓨터 학원을 열고 현지인과 1:1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학원생들과 현지 교사들을 조심스럽게 제자들로 키우며 NGO까지 설립했다.

"선교제한 지역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그러나 고용을 창출하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비즈니스로 접근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환영받을 수 있다"

최 목사의 성공 뒤에는 남모를 고생도 많았다. 사회적 법규와 문화와 관습이 전혀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외국인으로서 사업을 이어나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다시 일어 설 수 있었다"고 말한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그는 포기를 몰랐다. 사업동기부터 여느 사업가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기업인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불모지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크리스천으로서 신뢰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어도 능통해졌다. 아제르바이잔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까지 사전 같은 책을 무려 20번 이상 마스터할 만큼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의 대형 건축 공사 입찰을 받을 때는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1년 6개월 이상 공서를 찾아다녔다.

그는 먼저 건물 경비원들과 친해졌다. 그 후 영부인 비서부터, 비서실장, 총리, 부총리, 장-ⓒ차관이 모두 그의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됐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기 전 2년 정도 언어 공부에 전념하는데 비해 40세가 넘어 선교사가 된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넉넉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선교와 사업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면서 현지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다. 이 같은 신뢰가 쌓이자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열매를 얻었다. 바로 '언어' 와 '사람' 이었다."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비즈니스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사람' 과 '언어' 이 두 자산을 기반으로 그는 LED 디스플레이 전광판의 판로를 개척해나갔다. 결과는 대성공. 이후 아제르바이잔 주 정부의 대형 건설 사업을 연이어 수주 및 시행하면서 3억 달러 규모로 사업체를 조금씩 성장시켰다. LED 디스플레이 전광판은 물론, 축구장, 수영장, 리조트 건설 등으로 현재는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브라질, 알바니아 등 10여 개국에서 7억 달러 매출에 도전 중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주하게 돼요. 멈추면 그 순간 바로 낙오자가 되는 거죠.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어느새 성공이라는 희망이 눈앞에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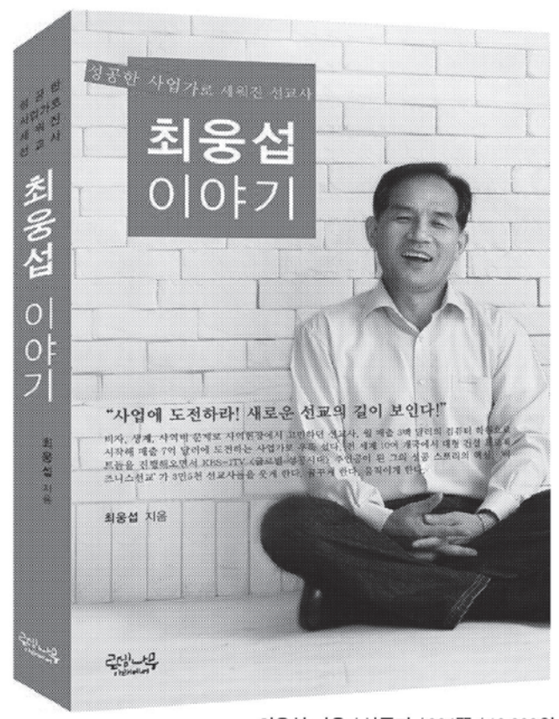
한편 비즈니스가 곧 선교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보여준 이 책의 수익금 일부는 (사)돕는 사람들 IDF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토)오전 11시 새중앙교회(박중식 목사)에서 성공한 사업가 선교사 최웅섭이야기 출판기념과 비즈니스선교 포럼을 개최했다.

새중앙교회 최웅섭 선교총괄목사
문의 010-5101-0885

성공한 사업가로 세워진 선교사

최웅섭 이야기

사업에 도전하라! 새로운 선교의 길이 보인다!
비자, 생계,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는 3만5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웃게 한다. 꿈꾸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



KBS-1TV 〈글로벌 성공시대〉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로
비즈니스선교의 비전과 **해외 사업**의 꿈을 품은 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창의적 접근 지역을 여는 지혜로운 열쇠이자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즈니스선교' 의 교과서**가 되어줄 책



지은이 최웅섭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는 목사다. 호방한 웃음에 작은 눈이 더욱 작아지고 눈꼬리마저 더욱 처지고 마는 표정도 그러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흐뭇한 표정으로 귀 기울여주는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고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12년간 군인 시절을 보냈다는 이력이 믿기지 않을 만큼 살가운 느낌이 드는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2년간의 군복무 후 복학한 신학교 시절, 전도사로서 여러 교회를 섬겼고,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는 강도사로 일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교회 부교역자로 활동하던 중 노총각 신세를 면하고자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등록, 당시 터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바울선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13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해왔다.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사 외에도 현재 많은 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주도해오고 있다. ㈜포유글로벌테크 대표이사 및 회장인 동시에 포유장학재단 이사장, 포유국제NGO재단 이사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제3통상위원장 지회장, 대신총회신학교 이사, 한국인터넷 선교학회(SWIM) 공동회장 등이 그것이다. 그 바쁜 와중에도 선교총괄목사로 평촌 새중앙교회를 섬기면서 비즈니스선교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강의와 순회선교를 해오고 있다.

새중앙교회 최웅섭 선교총괄목사 문의 010-5101-0885

〈서평〉

이재환선교사, 컴선교회 대표 : "책을 읽는 순간, 낚시바늘에 물린 것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다 읽고 난 마음은 후련했다. 여름 가뭄에 생수를 만난 것 같았다. 현대 선교 전략에 비즈니스선교는 뜨거운 감자였다. 마음은 있지만 어느 한 가지도 그 모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 선교를 지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교과서처럼 읽어야 할 책이다. 비즈니스가 곧 선교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비즈니스를 위한 선교,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선교사들의 삶과 성공적인 사역의 안내를 돕는 멋진 책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 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 멋진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김무정 PD, KBS1-TV (글로벌 성공시대) 연출가 : "그의 별명은 '불의 나라 회장'이다.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지은 별명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불꽃과 같은 삶이기에 이 별명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즐거워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삶, 사업이든 선교든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많이 생겨나길 기원한다."

박진석 목사, 기름의교회 담임목사 : "이 책은 장밋빛 성공 스토리만 다루고 있지 않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내적 갈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토대로 현실감 있게 전해주고 있다. 선교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선교지의 혹독한 현실과 사역을 인지시키는 데 큰 지침이 될 것이다."

박중식 목사, 평촌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 "비즈니스선교는 앞으로 남은 3천여 미전도 종족을 향해 꼭 필요한 선교 전략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변방과 종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삶의 증거이고 간증이다. 꼭 읽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초청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빛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도수선교사, 브라질 상파울로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비즈니스선교는 21세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선교 통로요 방법이며 그 자체가 선교다. 날이 갈수록 선교지가 좁혀져 가고 있는 이때에 평신도 선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선교 역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선교 환경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웅섭 지음 / 신국판 / 304쪽 / 13,000원
ISBN 979-11-950094-0-4 03230 / 도서출판 〈로뎀나무아래에서〉

예장 해외합동 제35회 총회, 총회장 조도식 목사 선출

제1부총회장 피종진 목사, 제2부총회장 옥승호 목사를 추대



해외합동총회 총회장 조도식 목사



제35회 예장 해외합동 총회가 지난 5월 14~16일 미국 필라델피아 글로벌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려 총회장에 조도식 목사(세계성령교회)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개선하고 2015년까지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21개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욱 목사(증경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박요한 목사(증경총회장)의 기도와 총회장 이응주 목사의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는 교회' 제하의 설교에 이어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의 축사, 조도식 목사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돼 박성만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교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김 훈 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 제35회 총회를 이곳 미국 독립의 역사적인 상징인 필라델피아에서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정통 개혁주의 신앙의 정신으로 전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지구촌 선교 구원사역에 전력을 다해온 해외합동 총회가 한교연의 회원교단으로서 새로운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며, 주님 안에 한 형제된 전세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함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성찬예식과 피종진 목사를 강사로 저녁 특별집회가 이틀 동안 열렸다.

이튿날 아침에 개회된 총회는 회무처리에 들어가 총회 헌법과 규칙을 채택하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부총회장 조도식 목사(세계성령교회)를 총회장에 선출하는 등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 선출은 총회장과 증경총회장단이 추천한 임원을 총회 본회의에서 일괄 인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제1부총회장에는 피종진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옥승호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여성안수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총대들은 한국교회의 추세에 맞춰 여성안수를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모교단인 합동총회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 정회와 속회를 반복한 끝에 2015년까지 여성안수 시행을 전제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총대들은 합동총회가 이직 여성안수를 불허하고 있으나 해외합동 총회에 소속된 일부 노회가 이미 선교사 파송 등에서 여성목사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총대들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자 증경총회장 김동욱 목사가 앞으로 2년간 연구하되 무작정 연구하기보다 2015년에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회는 또한 4개 대회로 나뉘어 있던 대회를 아시아대회와 미주대회 양대 체제로 개편했으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사이비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위원회와 동 교단 소속인 최한우 목사와 인터콥을 이단사이비 시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각 신설하기로 하고 차기 총회를 남서울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다음은 임원 명단〉

▲총회장: 조도식 목사

▲부총회장: 피종진 목사 옥승호 목사 ▲총무: 김경순 목사(와싱톤 노회) ▲서기: 김진철 목사(해외노회) 〈부〉 이 오네시모 목사(보스톤노회) ▲회록서기: 정연회 목사(시카고노회) 〈부〉 김종택 목사(필리핀노회) ▲회계: 김창순 장로(필라델피아노회) 〈부〉 송장수 장로(동남부노회), ▲협동총무: 최한우 목사(필라델피아노회) 김영택목사(한미노회) 김영관 목사(동북노회)

해외합동 제35회 총회장 조도식 목사 인터뷰기사는 (www.jtntv.kr) 인터넷방송 참조

피종진 목사 6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3(월)~ 5(수)	광주 샬롬선교센터(고정임 목사) ☎(062)432-6392
6(목)~ 8(토)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2)2662-0691
7(금) 오전	세계기독교선교협의회(대표총재 윤호균 목사, 대표회장 장향희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0(월) 오전	서울 성림교회(김명숙 목사) ☎(02)563-3560
10(월)~12(수)	태국(Thailand) 방콕 동남아시아 지역선교사 연합수련회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동남아시아위원장 남태섭 목사, 서기 김광석 목사)
14(금) 철야	인천 성원제일교회(박명환 목사) ☎(032)578-0591
17(월)~20(목)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2)472-7213
21(금) 오전	연세충동문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연합구국기도회, 장소: 서부전선
22(토) 오후	글로벌이애라찬양율동신학원(원장 이애라 목사, 운영위원장 피종진 목사) 예술제, 장소 : KBS홀
24(월) 오후	대전 기도치유센터(원장 장요한 목사) ☎ 070-4248-0195
26(수) 저녁	공주 소알산기도원(원장 복정예 목사) ☎(041)856-3027
27(목) 오후	서울 대신성결교회(박현모 목사) ☎(02)2613-2011 주최 : 기도치유센터(원장 장요한 목사)

한기총,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27일(월)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소재)에서 '경로당 활성화 및 노노케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경로당 노인 복지 향상 및 노인의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한기총의 협력사항으로는 ▲지역단위 교회와 경로당의 자매결연 추진 ▲교회 원로 및 성직자·직분자의 경로당 회원 가입 ▲신앙활동, 정서적 지지, 사랑 나눔 및 봉사 ▲노노케어 사업 협력 추진(돌봄 인력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있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한기총을 중심으로 전국의 55,000 교회가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면 노인들도 더 이상은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며 "62,000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한기총이 힘써 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번 협약을 기초로 전국 교회에 지역 경로당과의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자살, 빈곤, 교통사고, 학대, 우울증)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서로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협약사항이 진행되면서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협약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총신대, '콘서트홀 개관 음악제' 개최

저녁 7시30분부터 총신대학교 콘서틀홀에서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열려

총신대학교(총장 정일웅)는 신관 리모델링을 기념해 '총신대학교 콘서트홀 개관 음악제'를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신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개최하고 있다.

하재송 교수(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는"1973년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가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지난 40년 동안 음악홀 건립은 총신 교회음악인들의 간절한 소원이자 기도제목이었다."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아담한 콘서트홀이 완성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개관 음악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는 음악대학 시스템 안에서 6개과정(성악, 피아노, 작곡, 오르간, 지휘, 관현악)과 교수진들과 재학생, 졸업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면서 "이번 개관 음악제가 총신 교회음악과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음악적인 시도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콘서트홀에 오르간이 설치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하반기에도 교회음악과를 중심으로 기획연주 시리즈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동작구내에 변변한 콘서트홀이 없는데 총신대학교 콘서트홀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거라 예상한다."면서 "지역사회에 총신대학교 콘서트홀을 뿌리내리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5월 21일과 27일 연주는 지역에 있는 문화소외계층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또한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와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 콘서트홀이 학교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꼭 필요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 교수는 "교단 목회자 분들과 교인들이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가 교단과 총신대학교를 알리고 총신대학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는 1차적으로 교단과 교단내에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설립됐다. 교회음악과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총신대학교 콘서트홀 개관 음악제는 5월 3일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 개막연주'를 시작으로 5월 7일 'Capella Musica Seoul 초청연주회', 5월 9일 '김수진, 계봉원 듀오 리사이틀', 5월 14일 '총신 스트링 앙상블 연주회', 5월 21일 '오페라와 가곡의 밤', 5월 27일 'Seoul Master Choir 초청연주회', 5월 28일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동문연주회', 6월 11일 '김수연, 유지수 듀오 리사이틀', 6월 17일 '실내악의 밤', 6월 20일 'Piano Festival' 순으로 진행된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 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갑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혜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갑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 (이황규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 단 총 회
24-26 일신제일교회 (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얼산기도원 (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김단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현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울교회(라계동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젼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암성결교회(강석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길신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3 참좋은교회(기갑상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4-7 갑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젼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심방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황 목사)

2013년 5월
3 C채널 TV예배
6-8 참사랑교회 (강신조 목사)
11 주향기교회 (김홍수 목사)
13~15 신일교회 (정병수 목사)
17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19~6월1 2주 연속 특별 심야기도회

2013년 6월
3-5 나눔애교회(최종덕 목사)
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12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7-19 성산교회(이기재 목사)
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7-20 2주연속특별심야기도대성회 (예복교회 : 담임 소진우 목사)
22-24 은광교회(추영석 목사)

2013년 8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갑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